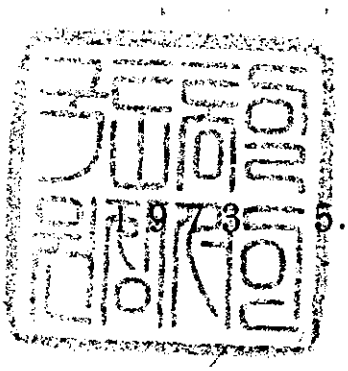
段階的 統一政策의 具体化 方案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国土統一院 1973年度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提出합니다.

1973年 5月 14日

研究機関

朝鮮大学校統一問題研究所

研究委員

責任者 崔 聖 俊

委 員 趙 基 洙

目　　次

1．序　論　（南北統一의　始作）……7

2．韓国分断에　대한　歷史的　考察……9

3．南北統一의　当為性……11

①　国家的　要請에서　본　統一의　当為性……11

②　国際社会的　要請에서　본　統一의　当為性……13

4．韓国分断과　他分断国家와의　比較……15

5．南北韓　接触　開始……17

①　南北赤十字社会談……17

②　南北調節委員会会談　및　其他接触……18

6．7.4南北共同　声明의　意義……21

7．統一政策의　樹立과　基本方案……23

①　統一政策의　発生과　樹立……23

②　統一政策과　国民輿論……25

③　統一政策의　可変性과　그　対策……27

④　統一政策과　国際政治的　関係　및　그　対策……30

8．段階的　統一方案에　대한　綜合的　考察……35

①　平和的　会談開始……35

② 国家 総力의 集結 37
③ 国際情勢의 変化와 韓国統一 40
④ 段階的 統一方案의 樹立과 그 実践 43
9. 段階的 統一政策의 具体化 方案 46
① 第一段階(人道主義에 立脚한 交流) 46
㉮ 南北 自由往来 48
㉯ 南北書信·通信 및 一般書籍의 交換 49
㉰ 文化芸術 学術交流 51
㉱ 体育交流 58
㉲ 各種 視察団 交流 61
㉳ UN其他 関係機構 共同加入 63
㉴ 保健医療구호에 관한 交流 64
② 第二段階(経済交流의 実践) 67
㉮ 南北韓物資 및 共同研究 67
㉯ 経済共同開発 및 共同研究 68
㉰ 経済技術科学의 情報交換 70
㉱ 共同経済会談 및 経済組織体構成 73
㉲ 海外市場 共同開発 및 協力 76
㉳ UN및 其他 経済国際機構에 加入하는 問題 78

③ 第三段階（政治的 統一斗 会談）…… 83
㉮ 国土統一共同協議会設置…… 83
㉯ 統一選挙管理委員会設置…… 85
㉰ UN加入 問題…… 89
㉱ 国際機構 共同加入 問題…… 93
㉲ 一般的 政治交流…… 97
10．結 論 （国土統一의 完成）…… 101

1. 序　　論

(南北統一의　始作)

国家分断이란 非正常状態를 統一이란 正常的 상태에 回復시킨다는 것은 論理上으로는 너무나 当然한 일이나 복잡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또는 利害関係가 対立的인 상황하에서는 너무나 막연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事例가 論理的으로 実際的으로 困難한 일이면 차라리 모르되 論理的 当為性과 実際的 困難性이 併立할때 実践에서 어려움을 当한다는데 대해서 이 統一問題의 困難性이 発生한다. 우리는 不幸이도 이런 状況下에서 国土統一을 成就해야 하기 때문에 統一이란 当為性과 困難性이 더욱 事態를 어렵게 만들고 그 基本方針수립에도 主観的인 立場과 内部的인 政治慾求에만 依存할수가 없게된다. 統一이란 民族的 使命感에서 또 統一이란 政治的 課業에서 우러나는 基本方案認定도 客観的 情勢와 主観的 意欲에서 때로는 混合된 可能性을 前提로한 政策樹立이 切実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런 順理的 과정에서도 우리側 方針 貫徹이란 政治行動에서 흔히 相対方의 立場을 忘却한 또는 容納될 수 없는

方法에만 고집하기 때문에 基本政策樹立과 그 運営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普通이다. 바로 이와같은 普通이란 状況下에서 困難을 극복하고 때로는 進退両難의 立場에 처하게되고 때로는 国論善導라는 課業앞에서 더욱 統一에 대한 情勢와 勇気를 고취시켜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現実이다. 우리는 統一에 대해서 우리의 利益과 使命感이 調和되고 成就될 수 있는 基本方案을 決定해서 外交面에서 交渉面에서 또 이것이 큰 뒷받침이 되는 国力集和에서 進軍하고 그 結果를 有利하게 展開시켜야 한다. 여기에 우리는 具体的 方案의 設定이 急先務가 되고 이 方案의 実践이 要求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案出되어 方向設定이 되여있는 段階的 統一政策을 実践하는 데에 적용될 방안의 研究가 必要하므로 이 論文은 이런 要求를 充足시키고 発展的 政治遂行에 도움이 되는 燈火로써 学問的 成果를 期待해 보자는데 目的이 있다.

이런 意味에서 이런 研究活動과 論文作成과 이 論文의 建議를 더욱 必要하게 되므로 実利를 土台로하고 相対方의 立場과 基本方案을 充分히 또 完全히 把握하고 意義있는 論文을 期待하면서 具体化 方案을 案出해 보고자 한다.

2 . 韓国分断에 対한歷史的考察

솔직히 말해서 韓国分断의 歷史的 由来에 대한 究明은 時期的으로 크게 重要한 일은 아니다. 어떤 政治的 変化가 招来되었을때 그 当時는 그 原因究明이 그 対策을 樹立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重要한 意義를 갖는 것이 事実이나 韓国分断이 近30年 持続되고 이 解決이 今明間에 이루워질 展望도 없고보면 現状維持에서오는 慣性 때문에 그 原因究明의 必要性이 감소되고 만다.

韓国分断은 第二次世界大戦前에 抬頭되었던 강대국주의의 産物이다. 民族自決이란 政治理想을 부르짖으면서도 事実은 国際政治가 強大国의 影響力行事에서 이루워졌다는 것이 事実이고 보면 韓国分断도 第二次世界大戦 終末期에서 戦勝을 目前에 둔 当時의 強大国들의 戦後処理란 目標아래서 특히 韓国은 戦敗国 日本의 統治下에 있었으므로 특히 一方的 決定 即 国土分断이란 예상외의 事実을 招来하고 말았다. 日本国의 무장해제와 直接目的이 되여 戦後処理의 하나로써 38선이 確定되여 무장해제후에도 政治線化하고 결국은 国境線아닌 国境線으로 変하고 너무나 相異한 思想的 対立과 緊張

造成의 現実的 要因이 加重 되여 왔다. 分断의 直接責任者인 強大国들은 마땅히 이 政治的 悲劇을 해소시키고 民族自決主義原則을 수행해서 전후처리에서 또는 国際協力関係를 増進시키는 과정에서 分断해소에 決定的인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分断 비극도 世界大戦의 原因이 될 可能性마저 보여 주는 形便에 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分断함으로써 세력강화의 道具로 하고 식민지的 基盤으로 할려고 하는 事実은 19世紀末 만국평화회의에서 또는 1945年 2月 얄타会談에서도 論議된바 있으나 直接原因은 미.쏘의 軍事的 勝利에 由来되며 実로 政策樹立者들의 우연한 事務的 決定에 基因한 것이 分明하다.

이러한 歷史的 由来는 또 歷史의 수행에 따라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으나 전후냉전과 国際協力의 무성의에 큰 原因을 두고 解決될 可望은 없는것 같으나 国内的 欲望과 国際的 協力을 얻어 꼭 解決 되여야 할 일이며 国際平和達成이란 人類의 最大使命으로 볼때 分断国의 해결없이 이 目的을 달성 하기는 어렵다는 일이 더욱 認識되여가고 있다.

3 . 南北統一의 当為性

① 国家的 要請에서본 統一의 当為性

간단히 말해서 統一에의 熱望과 그 当為性은 分断 그 自体에 있다. 国家라는 存在가 歷史的 産物이든 또 人為的 産物이든 人間社会生活의 極上的 単位로써 必要한 存在이다면 이 必要한 存在의 分断은 곧 이 必要性을 否認하는 것이니 統一 또는 再結合은 国家目的의 基本目的이 되여야한다는 것은 너무나 自然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政治現実로써는 統一의 要件이 複雜하고 地理的으로 강대국사이에 位置하고 思想的対立 体制의 差異에서 더구나 弱小国이고 後進国이란 決定的 事実은 強大国의 영향을 全的으로 받게 되므로 分断国 相互間에 전쟁을 하고보면 国土統一이란 거의 不可能한 状態에 빠지고 만다. 韓国事情이 그리고 월남사정이 그렇고보면 分断国의 統一이란 確実히 不可能하다는 것을 実証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分断에 대한 関心이 고조되고 統一에 대한 念願은 더욱 심해지니 理想과 現実의 相異가 심각히 나타난다. 한국은 1950年 動乱으로 分断이 더욱 確定되여 북한의 도발적태도 긴장

조성으로 統一이란 不可能한것 같은 事実이였으나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統一이란 使命感은 더욱 高潮되고 世界情勢의 변화에 따라 統一이란 모든 분야에 앞서 国家的 使命으로 등장되게 되였다. 이것은 북한측 사정도 同一 할것으로 추측된다. 人民解放이란 미명과 혁명전쟁의 수행이라 하고 전국민무장화 전국토요새화 全国家体制의 전쟁 준비 완료에 突入에도 불구하고 統一이란 엄숙한 使命앞에는 統一을 달성하기 위한 힘에 依한 統一이 얼마나 無意味한가를 자각하게 되고 共産体制를 強化하는데는 民族統一이란 目的을 내세울수 밖에 없는 形便일것이라는 것은 自明한 理致이다. 남.북한이 理念과 体制가 相異하고 緊張완화라는 필요성을 통감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現実을 초월하기는 分明히 어려운 현실이서로 内包하고 있어도 国家的 要請을 무시할 수 없는 国民의 소리와 政治的 必要性은 절대로 否認할 수 없는 것이 事実이다. 国内体制를 정비하고 国民을 총단결 시키고 国力을 培養해서 民族中興과 복지国家建設도 統一이란 大課題가 이루워질려고 있으니 政党各段層을 총망라해서 統一에의 要請은 더욱 強化되고 어떤 代価를

支払해서라도 統一目的達成은 너무나 当然한 일로써 国民 総進軍의 目標가 되여야하며, 또 되여 있다.

② 国際社会的 要請에서본 統一의 当為性

国際政治的 立場에서 볼때 韓国統一 問題는 国家的 見地에서 要請되는 統一의 当為性보다는 더욱 복잡한 点이 있다. 이 복잡한 点은 各関係国의 이해関係가 対立되고 있으며 各国의 전략的 방법과 協力関係가 복잡한대에 이어 긴장이 存在하고 있는以上 그 当為性은 또 다른 形態를 보여주고 있음이 사실이나 統一이란 目標에 대해서는 이것을 反対하거나 政治的 軍事的 방해를 기도 할 수는 없음이 또 事実이고 보면 国際社会的 要請에서 보는 韓国統一도 自然스러운 것이며 単一国家에서 希望하는 統一과는 그 動機가 어느정도 相異하나 普遍的 全体社会의 장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当為性도 容易하게 認識이 된다. 国家的 要請에서 볼때는 関係国의 열망이 더욱 強하고 直接的 問題이나 国際社会的 見地에서는 関係国의 間接的 問題이고 따라서 利解관계의 영향이 퍽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現国家의 이해관계가 다른 多数国家의 이해

관계에 직결되고 다른国家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自国의 이해관계를 土台로한 政策을 樹立할 수 없는것이 原則이고 보면 韓国의 統一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使命感은 国内에서나 国際社会에서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世界共同関心事라 할 수 있다. 특히 東南亜의 現状과 장래의 展望을 깊이 살피보면 美.日本 中共 쏘련의 四大国의 세력균형이 절대적으로 必要하고 四大国의 相互協力없이 국제평화 達成이 不可能하다는 것이 사실이면 四大国의 相互接触地点에 位置한 韓国의 分断이란 얼마나 不自然스러운 現実이고 남북한 相互間의 긴장조성은 필연적으로 四大国 긴장조성에 직결되니 韓国統一이란 곧 그 目体의 当為性에서 오는 일일뿐더러 결국은 四大国의 平和達成에도 韓国統一은 먼저 달성해야 할 일이다. 亜細亜 平和는 곧 世界平和이고 韓国統一은 곧 亜細亜 平和이고 보면 한국통일은 곧 世界平和이니 국제평화 달성과 국제관계개선에도 필요한 일이니 남북한 전체국민의 열망과 병행해서 世界各国도 상호관계를 초월하고 국제평화 달성이란 目標아래 積極協力해서 韓国統一의 課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韓国分断과 他分断国家와 의比較

分断의 比較란 순수한 理論面에서 볼때는 分断이란 自体가 너무나 큰 悲劇이요 不自然스러운 政治現実이고 이로 因해서 너무나 큰 苦痛을 関係国에 주고 있기 때문에 無意味하게 보일때도 있다. 現実的으로 比較해서 그 差異点과 同一点을 認識하고 具体的 政策樹立과 実践에는 퍽 必要한 일이니. 월남과 독일과는 分断의 状態가 相異한 点도 있으나 또 同一한 点도 있다. 分断国各国間에 分断이 分明히 悲劇이나 그 原因이 모두 전쟁의 結果로써 초래되였다. 전쟁이 없었던들 国家分断이란 政治的 悲劇은 없었을 것이다. 전쟁이 불가피한 事実이고 또 장래에도 전쟁이 不可避한 事実이라고 한다면 分断国의 탄생이 없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分断国의 統一은 전쟁의 有無가 問題가 아니라 現在分断国의 해결 즉 통일이 큰 問題이다.

월남의 分断과 한국의 分断은 同一한 点이 相異한 点보다 더 많다. 統一이 이 두나라에는 事実上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事実上 不可能한 統一이 서로 민족적 숙원이고 이것이 国際平和 달성

에 필요한 要件이고 보면 統一에 대해서 全国力을 경주해야만 한다는 政治理想과 政治現実의 相互背反的인 입장에서 困難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독일의 分断은 軍事的戦争이 없고 国際法的 相互承認은 아니드라도 一民族二国家라는 国家形態로써 事実上 서로 承認하고 国家的 水準에서 서로 承認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식 立場을 取할 수 없는 것이 우리 立場이고 이 点이 分断国으로써 서로 相異한 点이다. 이 모든 事実이 明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分断에서 오는 問題解決은 독일式 解決方案을 無視할 수 없다는 点이다. 독일은 人道主義的 相互 往来와 交渉이 始作되였고 약간의 物質교류도 있고 지도자의 公的会合도 이미 수차 이루워졌고 国家的 잠재承認이란 現実에서 統一은 相当한 進展을 보이고 있다. 이런 方案이 成功한다면 우리나라도 꼭 이런 方法을 택하는데는 問題의 餘地가 아직도 많지만 또 버려두고 다른나라의 統一方案이요 우리 実情에는 전연 맞지않은다고 放置할 수 없을 것이다. 国土統一이 真実로 国家的 使命이고 보면 他国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더더구나 成果가 있는 事例는 설사 共産国家와 대등한 立場에서 이루어져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의 目的達成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充分히 比較検討해서 정책수립과 그 実践에 과감해야 할것이며 이런 意味에서 分断相互間의 統一努力을 比較하는 것이 또 절실히 要請된다.

5 . 南北韓接触開始

① 南北 赤十字社会談

民間団体가 순수한 人道主義的 立場에서 南北接触을 해야 한다는 것은 순수한 亜細亜의 国際情勢変化에서 온 것이다.

과거에도 南北接触을 생각한 一部人士가 없는것도 아니였지만 당시의 南北緊張 状態와 国策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北韓이 完全히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아래서는 南北接触이란 사실 무의미한 것이다.

欧羅巴 정세변화 日本 정세변화 美.中共 和解 또 中共自体의 変化 여기에다 월남전의 長期化라는 現実이 各国間에 힘의 対決보다는 和解 協商이 바람직하다는 자각에서 南北接触의 분위기가 서서히 성숙되여갔다. 그 前에도 南北의 極히 限定된 범위에서 民間級의 接触이 없는 것도 아니나 対共産圏 接触이란 가장 큰 国是 違反이였다.

美国의 닉슨主義선언과 그후 中共과의 歴史的 和解宣言에서 우리 国内事情도 크게 変化하는 適機를 利用해서 人道主義的 立場에서 서로

離散家族을 찾고 서로 내왕할 수 있는 방법을 取함으로써 決定的인 和解에서 앞으로 政治的 統一에의 基礎가 되자는 提案이 完全히 우리측 주도아래서 이루어 진것이 南北赤十字의 相互交涉이였다.

㉡ 南北調節委員会 会談 및 其他接触

南北赤十字社会談은 最初부터 너무나 期待하기 어려운 会談이였다. 断絶된 対話가 始作된다는 期待와 政治的効果以外는 어떤 方法으로 어떤 指導理念으로 택해야 할지 참으로 어려운 会談이였다. 全体主義体制社会의 理念이란 조직과 支配 以外는 없고 이 조직과 支配는 끊임없는 対内的 対外的 선전으로서만 그 명맥이 유지되는 것이 共産社会의 決定的 事実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人道主義란 精神은 成立이 안될뿐더러 설사 人道主義 精神을 이해 한다 하더라도 그 정신을 그 体制속에서 実現할 수 없는 것이 共産支配의 原則이고 보면 이 南北赤十字社 会談이 처음부터 人道主義 対 政治主義로써 対立 될것은 너무나 明白하고 사실 会談이 진첩됨에 따라 人道主義와 政治主義가 그 成果를 期待하기 어려운 만큼 対立되기 시작했다. 이런 内部的 困難을 確実히 포함하고도 수행해야만 하는 것

이 赤十字社会談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世界的 潮流인 힘의 対決이 無意味하고 協商만이 真理이라는 国際政治의 新指導理念을 共産主義 国家라도 否認할 수 없다는 事例가 일어나고 또 어떤 形態의 南北 会談이든지 그 成果는 고사하고 当面의 宣伝과 国内의 流動的인 政治情勢와 경제정세를 위장하는 데는 絶好의 기회이고 또 充分히 利用할 수 있는 政治行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南北赤十字社 会談이 始作되고 相互間 密閉된 窓口가 약간 열려가므로써 서로 이런 交渉이 얼마나 困難한 일인가 서로 断絶되여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 体制의 発展과 合理性을 忘却하고 적대심에 불타고 있었는가를 서서히 自覚하기 始作했다. 事実은 서로 이 自覚이 重要한 所得이라 할 수 있다. 이런 自覚이 真心코 相対方을 理解하는 동기가 된다면 人道主義와 政治主義가 同時에 반영될 수 있는 対外形態의 方法 다시말해서 相対가 있는 対外交渉에서 서로 協力 할 수 있는 可能性을 前提로한 方向을 제시할 용기와 행동기술이 切実히 要求된다.

南北赤十字会談은 그 目標가 어디 있던간에 배후의 정치세력을

완전히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完全한 政治変化가 있기前에는 決定的 期待가 어렵지만 相互 이 会談을 成功시켜야 하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長時間은 걸릴지 모르나 政治色을 다소 内包한 形態의 離散家族 相互間交流 通信交換 制限된 왕래까지는 期待할 수 있다.

南北間 接触이 南北赤十字社会談을 제외하고는 南北調節委員会 接触을 둘 수 있다. 그外 接触은 정식으로는 있을수 없으나 主로 海外에서 非公式으로 운동 문화를 통해서 이루워질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交渉 接触은 크게 期待 할 수 없고 相互体制의 変化를 일으킬 정도도 못되고 다만 緊張완화와 南北調節委員会·南北赤十字社会談의 公的接触의 여파로써 이루워지고 있다. 南北調節委員会·南北赤十字社会談을 側面的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욱 활발히 이런 接触이 期待되고 日本에의 南北団体相互 合同行事를 挙行하는 것을 始初로 해서 理解를 土台로한 接触이나 交渉이 期待된다.

日本의 在日僑胞団体가 이런 接触을 더욱 활발히 해서 地理的으로 数的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在日僑胞의 상호이해에서는 서로 관계국에서 意識的인 후원과 지시가 要求되고 이런 部分的인 行動이 南北緊張완화에 큰 도움이 될때 国内에서 이루어지는 各種南北交渉과 接触이 큰 성과를 보여줄 것은 明白하다.

6 . 7.4 南北共同声明의 意義

7.4共同声明은 南北相互間에 分明히 一大転換을 이룩해주는 原因이 되었다. 택일에 대한 自己側勝算을 一方的으로 의식한 성명인듯한 印象을 全然주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대한 歷史에 위대한 変化를 알려주는 歷史的 声明임에는 틀림없다. 国家를 認定하지도 않고 失地에 樹立된 非合法政権이라고 보기때문에 이 声明의 共同이란 立場에는 論理的해석에 구구한 意見을 보여줄지 모르나 国政責任者인 大統領職権行使의 범주 內에서 이런 성명은 그런대로 큰 意義를 갖는것은 否認할 수 없다. 더구나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주체의식속에서 남북통일을 이룬다는 点에 대해서는 하등의 異議가 있을 수 없다. 이 声明은 南北統一에 대해서 共同으로 努力하고 꼭 共同으로 達成한다는 약속을 正式으로 国內外에 約束한 것이다. 한민족 自体의 力量도 力量이려니와 民族의 우수性과 이해성을 內外에 보여주고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東南亜細亜 또 全世界의 政治変化와 平和達成에 큰 礎石이 되는 행동개시의 信号弾이고 보면 우선 国家的 承認이란 法的개념을 초월해서 事

実上存在를 相対로 해서 꼭 이룩해야할 南北統一의 길고 험난한 일이 예상된다할지라도 民族的 使命을 수행한다는 歷史的 使命을 일층 강렬히 부각시켜주었다. 7.4共同声明은 統一에 대한 具体的 政策樹立을 서두르게했다. 具体的 方案이란 우리側 立場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交涉의 相対가 받아드릴 수 있는 方案을 수립해야 한다. 적대관계에서 長時的 斷絶된 南北의 窓口을 열고 서로의 体制에 오해를 해소하고 그 立場을 생각하면서 交涉을 始作한다는 基本原則과 精神이 宣布되었으니 南北赤十字社会談과 南北調節委員会의 기능이 더욱 활발해지고 民族的 自覚과 統一에의 부푼 꿈의 실현에 활력소가 되었다. 南北統一이 外部情勢의 変化에서 초래되는 時期的 行動으로서 또 一方으로는 우리 国力培養과 国民関心의 총집중 統一의 実現이 卓上의 理想論이 아니고 現実이라는 国民的 自信을 土台로 한 国内 体制整備를 自然発生的으로 초래케 한다.

7. 統一政策의 樹立과 基本政策

① 統一政策의 発生과 樹立

1945년 해방과 더불어 分断이 現実化되자 統一이란 目的수행보다 両占領軍의 行政管理에만 追従하기에 바빴고 統一選挙에 대한 UN의 努力도 없지는 않았으나 両韓単独樹立이 事実上 分断을 기정사실로 승인하고만 結果가 되었다. 統一이란 念願이 희박할때 統一政策이 樹立 될수가 없었다. 国家統一이란 国民各自의 마음속에만 있었지 表面上 統一問題를 論한다는 것은 오히려 타부시되고 統一問題란 곧 容共을 意味하는 結果가 되여 反共을 国是로 하는 大韓民国에서는 오히려 統一政策의 論議가 위험시당해왔다. 1960년代에 들어서서 民族中興課業이 成果를 거두기 始作하고 경제개발이 어느정도 軌道에 오르고 복지国家건설이란 希望과 情勢가 더욱 가능해지자 차츰 통일관을 정시하는 風潮가 国内外서 서서히 이루기 始作하고 정부기구内에 国土統一院을 設置하고 朴大統領의 南北統一에 대한 획기적인 광복절기념사를 通해서 急速度로 統一問題는 부각되었다. 中共과의 和解政策이 미국·日本서 채택되고 中共의

発展과 더불어 구라파 各国의 交渉 또는 国家承認이 正式으로 그 数를 증가시키고 世界의 指導理念은 武力으로서는 相互間에 不利한 조건만 초래하고 전쟁을 해피하는 決定的 国内 여론이 発生하자 協商을 通한 해결방안이 政策의 根本精神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変化의 自然추세에 힘입어 성급한 統一論도 없지 않았으나 大体로 誠実하고 真実한 土台위에서 統一政策을 追求하게 되었다. 특히 統一院指導와 지원아래 各大学에 연구기관이 설치되고 言論報導가 여기에 큰 관심을 보이자 차츰 統一政策樹立의 기운이 싹트기 始作했다. 南北赤十字社의 接触 7.4共同声明 南北調節委員会 設置가 統一政策樹立의 直接的 동기가 되고 정치색을 排除한 離散家族부터 相面시키고 7.4共同声明精神에 입각해서 相互 交流를 증대시키고 그후 정치적 협조를 求한다는 大体的인 統一政策이 樹立되며 大体로 이런 面에서 相互交渉에 임할 우리側 方針이 決定되기에 이루어졌다. 물론 北韓側은 심중히 조심스럽게 会議初期에 그 탐색적 방침을 고수하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선전 즉 民族解放과 国家統一을 달성케 하는 성의는 北韓분이라는 効

果를 노리면서 始終一貫해서 정치적 해결을 求하는 완고한 方針의 一片을 보여주기 始作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도 우리 統一政策은 変할수도 없고 当分間은 変化시킬 필요도 없고 더욱 진지한 交涉을 展開해서 그 結果를 분석하고 여기에 더욱 알맞은 方針을 강행해야 할것이다.

㉣ 統一政策과 国民與論

모든 政策樹立에 正当한 국민여론이 반영 되여야 한다는 것은 当然한 일이고 사실 이렇게 実行하고 있다. 統一政策도 正当한 国民여론과 国民의 지혜가 반영되여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統一政策樹立은 사실상 다른 政策樹立과는 약간 다르다. 統一政策은 고도의 指導性과 本質이 다르는 相対方과의 交涉이란 次元이 다른 現実問題들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上向式 반영보다도 下向式계몽과 홍보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엄격히 말해서 確固不動한 統一政策을 樹立해서 이것을 一方的으로 強行할수는 없다. 이것도 일종의 外交交涉이니 더구나 早速한 時日에 그 결정 효과를 바라보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相対方의 実情과 內意를 充分히

파악하고 끈기있게 대처해야 하므로 때에 따라 能少能大하게 그 方針을 적용해야 한다.

統一은 民族的 大任으로서 누구나 否認할 수 없으니 정부정책에 무조건 순응하기 쉬운 일이 이 統一問題다. 그러나 政策을 樹立할 때는 특히 各大学에 設置되여있는 연구기관의 研究結果를 充分히 참작해서 政策樹立에 反映시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특별히 수립과정에서 주의 할것은 可能性을 예상하고 여기에 맡은 政策이 国民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可能性이란 우리側도 相対方도 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이 可能性을 예상하지 못하고 무시한 政策樹立은 国民與論의 지지는 勿論이요 국제사회의 지지도 절대로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可能性에는 変化에 응할수 있는 아량과 때로는 政治的 희생도 각오 해야 할 것이다. 共産主義国家에서는 一挙에 政治軍事問題 해결을 강요 할것이며 고의로 会談을 지연시켜 그責任을 관철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런 結果를 초래하기 전에 相対方이 응할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우리 방침으로 해야한다. 적어도 統一問題에 限해서는 国民여론을 먼저 지도해서 지지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다.

③ 統一政策의 可変性과 그 対策

우리가 일단 결정한 統一政策을 그課程에서 実情에 알맞게 変化修正 또 보강해야 한다는 것은 充分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인도주의에 立脚하고 민간단체를 基礎로한 接触과 交渉에서 경제교류로 그 다음에 政治会談으로는 우리立場을 反映하고 共産主義를 알기 위해서는 時間이 必要하다는 事実을 볼때 充分히 수긍할 수 있는 계단적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相対方은 統一이란 政治問題이니 政治問題解決을 보면 経済問題 文化交流問題는 부수적으로 해결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게 될것이다. 우리 방침은 우리에게 有利하다고 判断하고 있는것과 同一하게 北韓側은 그 방침이 有利하고 国内的 国外的 선전 자료로써 充分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相異한 판단은 容易하게 合意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政治 経済 文化 接触과 교류問題를 同時에 다루면 그 可能性이 예견되나 北韓側은 最初에는 反対할것이나 최후까지 反対하지 못할 것이다. 최후까지 反対하면 진실로 統一을 願하고 있다는 自己들

의 主張이 사실로써 否認되기 때문이다. 北韓이 変하고 있는 것은 事実이다. 国際的 地位가 向上 되여 가고 있는 것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統一을 방해하는 要因이 될수는 없고 오히려 北韓으로서는 統一問題解決에 적극성을 보여줄 동기가 되리라고 믿어진다. 다음에 중요한것은 国際社会의 이에 대한 동향이다. 国際政治의 潮流나 国際社会의 여론은 반드시 한국통일에 유리 하다고만 예상할 수 없다. 自己나라 問題와는 直接的 관계가 희박 할뿐더러 自由主義国家와 共産主義 国家에 대한 政治的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相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여론 선도에는 全外交力을 集中 시켜야 하고 또 同時에 理念과 政治体制가 다른나라라 할지라도 경제文化交流의 促進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交流를 가져야 한다. 対共産国家에 대한 活動的인 交流 증대에 발맞추어 国内体制 整備와 国力 培養으로 民度向上을 도모 할때 北韓側을 정책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하게 되기 이전에 통일후의 유리한 政治的 支点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統一会談에 적극성을 보이게 될것은 명백한 일이다. 외교 交渉이란 相対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双方의 이익이 공동으로 또 최대한 보장되는 第三方法이 수립되여야 함으로 統一政策의 変化는 있을수 있는 일이고 후퇴나 패배를 의미 한것은 아니다. 真実로 서로 国土統一을 願한다면 우리의 현실과 현체제대로 統一되면 물론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理想的 統一이나 이 理想的 統一을 꼭 바라면서도 現実은 너무나 相異하다는데서 이 統一이 너무나 복잡다난한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相対方이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너무나 明白하므로 우리 주장과 우리의 유리한 장래의 입장 또는 앞으로 있을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고 이것이 최대한 반영될 방법을 相対方 주장과 절충해서 統一問題를 다루어야 한다. 勿論 共産側은 이것과 同一하나 北韓이 주장하는 방법과 정치이념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 드릴수가 없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北韓이 統一을 願한다면, ……民族主体性을 確立하고 平和的 統一을 願한다면……우리측 立場과 理念을 어느 정도 받아 드릴수 있는 体制上 変化를 대담하게 決行하고 可能한 第三方法에 접근할 수 있는 変化를 가져와야 한다.

무력통일을 포기하고 평화적 통일과 민족자결 정신으로 통일을 달성 할려고 하면 먼저 통일 정책을 시급히 政治的으로 해결 하려고 하지 말고 계단적 방법과 더욱 이해의 時間이 必要하다는 事実을 認識해야 하고 우리는 이것을 認識시키는데 忍耐와 努力이 必要하다.

④ 統一政策과 国際政治的 関係 및 그 対策

第2次 世界大戦의 전후 처리로써 国家分断이란 政治的 기형아가 탄생되었다. 28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分断国이 統一된 例는 없을 뿐더러 分断国에서는 오히려 전쟁이 発生하고 世界緊張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韓国統一도 民族主体性을 발휘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또 인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통일에의 실현 기대가 약간 고조되고는 있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国土統一이 이루워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明白히 断言할수도 없다. 統一이 単純히 国内問題인것 같으면서도 実은 큰 国際政治問題라는 것을 알게된다. 어디서든지 国土統一이 実現되지 못한것은

마.쏘 対立 때문이고 自由理念과 共産理念의 対立 때문이다. 미·쏘가 화해하고 共産対自由의 理念이 和解하면……理念의 화해란 実로 있을수 없고 相異 理念国家의 국제적 협력 관계를 말하자면…… 分断国의 統一은 이루어질것이라는 것은 基本的인 산술적 해결이다. 미.쏘 기타 강대국들이 이념을 초월해서 分断国 統一에 努力하면 統一은 分明히 이루워 질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自由 対 共産이 화해 할수도 없고 화해할려고 하지도 않는다. 다만 国際協力이 무력에 의한 交渉이 지금은 無意味하기 때문에 平和達成의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것도 강한 군사력을 維持하면서……평화적 노력이 실패할때 해결의 唯一한 方法은 軍事力이라는 잘 알고있기 때문에……힘을 배경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완화라는 一方的 情勢는 지속되나 긴장해소라는 근본적 해결은 없고 언제 이루워질지도 모르는 것이 現実情이다. 分断国의 統一은 不可避 할것인가 적어도 今世紀에는 実現하기 어려운 国際問題일 것인가 分断国 統合이란 관계국과 정치이상으로만 존재 할것이며 또 관계국 分断当事国의 統治方針으로만 利用되고 말것인가 언제인

가는 統一이 이루워질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UN自体가 国家연합적 성격을 띠고 존속 할것이며 지역적 국가연합의 協力体가 理想型으로 등장하고 国家内 장벽이 차차 철폐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分断国이 統一이 使命感達成과 理想으로서는 또 異論의 여지가 없으나 과연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발전과 행복을 초래 할것인가 分断国 해결은 国際政治的 관계에 너무나 엄청난 宿題를 課하고 있는 것도 事実이다. 現在로서는 한국주변 국가들은 또 강대국들은 원칙적으로만 統一努力을 찬양하고 있다. 実은 統一을 願하지도 않고 또 교묘히 이것을 방해 또는 지연시킬려고 하는 징조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 해결과 国際社会関心의 集中体로서 또는 이 政治的 努力의 구심점으로서 分断国의 UN加入이란 問題도 언제인가는 야기 될것이다. 한국에도 分断해소努力이 어느정도 진척됨에 따라서 国際的 관심이 어느 정도 集中되며 이 問題가 반드시 야기 된다. 이것은 상대방의 폐쇄된 지위를 結果的으로 向上시키고 事実上 하나의 민족과 두개의 国家라는 立場에서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예상 가능한 일들이 실은

참으로 統一을 희구하고 있다면 큰 問題는 아니다. 어차피 北韓측 要求대로 統一方案이 수락되지도 못하고 또 우리側 주장이 그대로 100% 北韓에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当事国이 고려 할수 있는 可能性을 前提로한 第三의 방법이 예상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유리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土台로한 体制를 구성할려면 역시 국력배양 경제발전의 힘을 배경으로한 국가건설 그리고 国際社会에서 安定된 地位確保를 先取해야 한다는 理論에 도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国内体制의 획기적 変化가 要求된다. 이 変化의 하나로써 十月維新은 그 必然性과 当為性이 認定받아야 하고 여기에 집결되는 모든 성과는 큰 統一에 集結되여야 한다. 統一을 달성하고 민족적 비원을 달성하고……민족적 숙원을 실현하는 것이 政治의 理想이고 또 정치의 최후적 目的이므로……国家発展이 国際社会発展에 기여 할려면 対決보다는 協力이라는 政治哲学을 절대로 신봉하고 이 정신적 신봉이 国家의 모든 시책에 나타나야 한다. 統一政策은 国際政治的 関係를 고려해서

樹立되어야 하고 이 樹立된 政策은 널리 国際社会에서 공명을 얻어야 한다. 国内的으로 偉大한 変化를 일으켜야하고 国際的으로 理念과 体制를 초월해서 各国과 協力関係를 맺고 国民여론을 対決反対에서 協力理解하는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 統一政策은 강대국 특히 미·쏘, 中共, 日本의 四大国의 관계에도 고려해 두어야 하니 四大国과의 協力관계에서 얻어지는 成果를 統一에 集中시켜야 할것이다.

8. 段階的 統一方案에 対한 綜合的 考察

① 平和的 会議開始

계단적 통일방안의 具体化는 交涉開始를 말한다. 남북적십자사 회담이 開始는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離散家族을 찾아 주자는데 그 目的이 있지만 이것은 分明한 南北統一의 始作이라 할 수 있다.

적십자사가 비록 民間단체라고 하나 一国一社가 原則인데 북한에도 赤十字社가 存在하고 있다는 事実은 북한도 그런대로 하나의 집단이란 点이다. 南北赤十字社가 会談을 始作한다는 것은 잠재意識的 이지만 북한의 存在를 事実上 認定하고 있다는 事実이다. 南北赤十字社 会談이 当面目的이 限定되여 있지만 長時日의 閉鎖状態를 타파하고 対話의 자리를 마련 했다는 것이 어떤 形態로서든지 統一에의 발동기가 始動하기 始作한 것이다. 우리들의 순수한 인도주의 精神이 북한측에 理解를 求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에는 人道라는 観念은 存在하지 않고 설사 存在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政治観念에 内包되여 있고 政治的색체의 태두리 안에서만 存在하기 때문에 북한측은 우리측의 反共的 体制의 형태를 요구

하고 나온다. 7·4共同声明도 물론 南北統一의 始作을 알려주고 있다. 7·4声明이 어떤 本意와 어떤 동기에서 出発했든간에 民族的 大任을 자각하고 民族的和平을 하자는 公約이고 보면 南北統一이 언제 이루워지던 또 영원히 分断상태로 存在하든간에 南北統一을 始作해보자는 信号弾임은 分明하다. 7·4共同声明은 북한보다 分明히 남한에 더욱 큰 충격과 부푼 기대감을 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閉鎖되고 통제된 북한사회에서는 남북공동성명이 하나의 정책임을 極히 一部分의 国民에게 알려 줄 뿐이지 거국적 関心事로 받어 들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7·4남북공동성명이 対話로써 統一의 具体化를 모색해보자는 平和的交渉이고 그 結果로써 設置된 남북조절위원회의 活動이 初期여서 그 成果를 評하기는 시기상조이나 会談을 始作했다는 点에서만도 偉大한 変化를 意味하고 있다. 統一이 緊急한 민족적 使命이고 보면 이것을 달성 하겠다는 努力은 正当히 환영 받어야 한다. 平和的 交渉의 開始는 그 結果의 예측은 뒤로 미루고라도 그 自体에 重大한 意義를 発見하고 이 의의는 반드시 국민지도의 근본을 이루워야 하며 이 근본

은 또 반드시 허심탄회하게 国民에 받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党派나 계층을 초월해서 전国民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 지지에 호응하는 적극적 자세를 取하는 것이 또 政治의 정도라 할 수 있다.

② 国家 総力의 集結

政治는 원래 国家総力의 集和에서온 成果를 期待하는 것이다. 북한은 完全한 독재체제에 오랜 세월을 보냈고 인민해방이란 口号 아래 国土를 요새화하고 国民을 무장화하고 있다. 독재주의란 통치방법으로 国民을 団結시키고 있다. 国民의 自由意思를 무시하고 共産主義理想社会를 건설해야하고 탄압과 숙청으로 비록 国民을 이끌고 왔다고는 하나 하나의 형태로써 国民을 単一化하고 있음은 事実이다. 따라서 国土統一에 대해서도 指導層의 방침과 命令에 따를 따름이지 여기에 대한 여론과 비판 또는 적극창의란 있을 수 없다. 理念와 형태는 여하간에 북한国民이 形式上 하나로 단결되여 있다. 지도자의 명령一下로 전국민을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화 하고 있다. 또 큰 성과를 얻고 있음이 사실이다. 더구나 남북적십자사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가 회수를 거듭할수록 북한은 획일적으로 단결을 強要하고 있는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남한의 민주주의 원칙아래 言論 出版 結社의 자유를 구가하고 그런대로 훈련받아왔고 자유라는 空気밑에서 生活해왔다. 남북통일이 理念과 体制가 同一한 相対끼리의 対話라면 모르되 理念과 体制가 完全히 相異하고 完全히 統一에 대한 目的意識이 다른 相対를 相対로 해야할 우리 韓国側으로서는 우선 国家総力의 집화를 통감하게 되었다. 国家総力의 集結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또 여하한 방법으로 이루워져야 할것인가 勿論 至難事中至難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남북통일회담을 앞두고 먼 장래에 통일이 이루워졌을때에 対備해서 우리는 경제발전과 国家発展을 더욱 加速化 시켜서 理念을 초월한 現実로써 북한에 대한 우위와 自由体制政治의 우수함을 입증하는데 対備할 必要를 통감하게 되었다. 남북통일이 우리들이 꼭 완수해야할 신성한 민족적 使命이라면 이 使命의 달성에 만사를 희생해서라도 国力을 培養하고 国力을 統一에 対備

集中해야 한다는 切実한 現実에 부딪치게 되였다. 偉大한 歷史를 바라보는 国民에게는 偉大한 変化를 감수하고 이것을 수행해 나가야할 能力이 있어야 한다. 偉大한 歷史에의 接近은 偉大한 変化……현실을 더욱 비약시키기 위한 変化에 견뎌내는 国民的 각성과 能力……가 요구된다. 남북통일이 해방이후 国民의 숙원이고 国際情勢가 이것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変化해 왔고 国内体制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남북성명이 민족앞에 世界人民앞에 엄숙히 선포되고 이것을 土台로한 남북평화적 交涉이 始作된 以上 우리는 그 具体性을 더욱 具体化시켜서 이것을 統一에의 길잡이로 할려면 국가총력을 集中해서 냉정히 그 成果를 期待하는 자세가 必要하다 통일정책을 달성하는 具体的 方案이 인도주의적 접촉에서 人的交流 경제교류에서 相互이해 相互이익을 보고 여기에서 完全한 평화적 분위기 달성 그리고 결정적 시기에 정치교섭 그후 완전통일이란 방법이 수립되여 그 근본방침과 방법은 대체적으로 수립결정 되였으므로 具体化方案의 연구에 앞서 国民의 총관심 집중 国家 総力의 集和를 期한다는 것이 더욱 통감된다.

③ 国際情勢의 変化와 韓国統一

共産主義 国家의 強大化는 分明히 自由主義 国家에서는 큰 관심사가 된다. 특히 북한이 第一次的 공격이 可能한 軍事力을 保有하고 38선을 中心으로한 緊張状態를 조성할때 世界平和에 직결되는 東北亜地方의 平和유지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이미 世界各国에서 異口同声으로 말한바 있다.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이란 엄연한 민족앞에 宣言한 公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동란의 책임을 전적으로 한국측에 전가 시킨다든지 무력 도발을 함으로써 군비상호 감축의 주장을 되풀이 한다든지 相互비난을 統一이란 民族的 使命앞에서 서로 중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화시키고 있는 등등의 사례를 볼때 統一에 대한 平和的 交涉이 이미 시작된 이 시기에 과연 그 真意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統一이란 美名아래 国力団結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위向上에만 주력하고 회담지연의 責任을 우리측에 전가시킨다는 복선아래 이 問題를 다룬다면 이것을 참으로 큰 오산이 된다. 왜냐하면 南北共同声明은 이미 全世界에 널리 알려져 있는 事実이며

自主的으로 国民의 民主力量을 과시 하겠다는 全世界国民에 대한 성약이니 이런 盟約아래서는 도의적으로나 国際信義上으로 보나 순순히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世界는 第二次世界大戦後에 UN의 創立을 보고 国際協力과 世界平和달성을 위해 努力해 왔지만 実은 오늘까지 도처에서 전쟁과 분쟁이 잇달았고 또 전쟁의 要因이 될 만한 思想的 対立 영토분쟁 경제전쟁 민족과 종교적 감정대립등 여러 가지 問題가 尙存하고 있다. 科学武器의 発達과 전쟁방지의 진지한 노력이 계속되고 대결보다는 화해로 일단 앞선 協力時代로 접어들고 또 世界国民이나 지도자들은 이 点을 통감하고 있으므로 緊張造成의 政策이 얼마나 그 나라를 孤立시키고 非難의 対象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現状況에서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国際協力의 会談 訪問外交 国際기구창설등으로 最大의 과업으로 変化하고 있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一国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위장된 평화 攻勢나 국제선전은 있을수도 없고 또 유기연관적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치에서는 成立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공산국가라도 너무

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진영에의 접근 평화해결 경제교류 군비축소에의 참가 国家의 自決的 政治行為에 대해서 不干渉 또는 中立的 態度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変化속에서 한국통일은 시기적으로 적합하고 分断国의 非合理를 해결한다는 국제努力 특히 강대국의 영향력 以上의 적극적 참여로서 해결해야 할 支点에 도달한 것이다. 미·쏘 和解, 美·中共화해, 日·中共協力, 양독일결합의 進展, 월남전쟁의 종식과 월남통일문제 共産国家와, 自由国家와의 접촉진전 등등 情勢는 決定的으로 한국통일 달성에 큰 希望을 던져주고 한국통일은 両側에서 숙명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点을 초월해서 具体的으로 相互접촉으로 해결해야 할 계단까지 도달했다. 한국통일은 이러한 国内的 要請과 国際的 要請이 結合되여 민간단체의 교섭 7·4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의 활동 開始 등으로 前途에 許多한 難点을 로정시키면서도 민족적 使命達成이 卓上公論이 아니고 期待할 수 있는 現実問題로 등장 하였으므로 우리나라도 접촉과 会談진행 방법을 決定하고 그 以上의 차원 높은 통일정책의 수립과 具体化 方案을 研究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勿論 이 具体化

方法은 実現可能性과 우리 国家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된 방법이라야 하고 이 방법은 全国民의 절대적 지지가 있어야 하고 우리 주변국가의 정세에 부합이 되어야 하고 또 異質的 상대와 交涉이니만큼 유동적인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可変性을 내포한 方案이어야 한다는 것은 再言할 필요가 없다.

④ 段階的 統一方案의 樹立과 実践

우리나라가 북한측과 남북적십자사회담을 開始하고 7·4남북共同声明精神에 立脚해서 設置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회수를 거듭함에 따라 북한측의 방안을 決定的으로 판단해서 대처하기는 時期尙早이나 종합적판단으로 추측할때 国内的 선전효과보다는 対外的 宣伝으로써 国際社会에서 地位를 向上시키고 대한민국과 同一한 수준의 国際的 地位를 유지 하면서 한국통일을 가장 熱望하고 있음은 남한보다도 북한측이라는 認識을 강화시키고 年来의 統一方法을 固守하고 미군철수 그 다음에 相互軍備縮少라는 年来의 主張을 되풀이 할려고 하는 底意가 있다는 것을 明白히 알게 되였다.

그러므로 政治的 問題를 最初부터 제시하고 비군철수와 상호군비 축소를 부르짖고 있다. 統一問題는 事実上 政治問題이기 때문에 政治問題부터 다루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이것은 原則일뿐 남북한 관계는 전연 사정이 다르다 하겠다. 全然相異한 理念과 体制속에서 28년이란 時間이 흘렀고 또 1950년에 전쟁을 도발하고 現在까지 国境아닌 国境線 38선으로 군사력을 집중 시키고 무장공비 남파도 거의 전쟁 상태에 있는 両国의 統一을 모색할 때는 냉각 期間이 절대로 必要하다. 相互理解에서 오는 相互 신뢰와 国際情勢의 潮流에 맞는 判断을 기초로 해서 政治問題해결의 준비기간이 必要하다. 남북통일이란 어려운 政治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사전준비와 과도적시간이 必要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상호화해 相互協力은 非政治的問題 非軍事的問題의 해결과 접촉이 선행해야 한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교류 文化芸術交流 또는 접촉부터 始作한다는 것은 너무나 当然한 일이다. 이러한 状況下에서 三단계 통일정책이 수립되고 正式 非公式으로 이 방침이 宣明 되였다. 勿論 이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고 최후까지 관철해야

할 것인가는 오로지 相対方의 方案과 国際情勢 특히 関係四大国 즉 미국·쏘련·日本·中共의 情勢에 따라 임기응변的으로 修正할때가 있을지 모르나 회담 始作 初期에는 우리의 確固否動한 方針을 樹立하고 相対方으로 하여금 우리 主張이 実情에 맞고, 会談이란 相対方에 대한 交渉이므로 또 会談 成功의 効果的方法이다는 것을 꾸준히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方針을 貫徹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설득만이 필요하다. 共産主義者에 대한 説明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国際情勢를 보아서 진정한 민족적 단합을 土台로한 統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방침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설득을 할 수 밖에 없다. 통일방안은 이와같은 立場에서 수립되였지만 그 実践은 참으로 어렵다. 실천과정에서는 相対가 있는 만큼 우리는 꾸준히 민족적 단합을 주장해야 하고 우리측에 他意가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국제정세를 설명하고 때로는 交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양보도 필요하다. 이 양보란 中共과의 화해나 他共産国家와의 交流 또는 접촉으로 相対 共産国家의 영향도 어느정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必要할 것이다.

9. 段階的 統一政策의 具体化 方案

① 第一段階 (人道主義에 立脚한 交流)

사실상 北韓에 대해서 人道主義에 立脚한 交涉이란 不可能에 가깝다.

共産国家에서 人道主義란 곧 反動이요 反国家이기 때문에 共産主義者들이 그 생각을 変更시키기에는 이것을 理解시키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人道主義에 立脚한 交涉을 해야 하는데 이 統一交涉은 根本的으로 難関이 있다.

이 難関을 打開해야 하는 데에 우리의 苦難이 있고 統一問題가 根本的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人道主義에 立脚한 交流는 곧 離散家族의 消息을 알려주고 再会의 알선을 해주자는 赤十字 提唱은 전적으로 올바른 일이고 가장 南北韓의 実情에 맞는 일이며 全世界各国으로 부터 支持를 받고 있는 것도 偶然한 일이 아니다.

人道主義精神으로 奉仕하는 것을 赤十字社는 根本精神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問題를 赤十字社가 담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南北赤十字社会談은 難題를 많이 안고 있으나 国際的 組織을 크게 가지고 있는 団体이므로 外部에서의 声援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長時間에 걸친 離散家族의 고통을 덜어주고 自由意思로 団結化시켜준다는 것은 南北緊張을 완화시켜주는 대는 이 以上의 일이 없을 것이다.

民族의 総意에 의해서 民主力量을 발휘하고 南北統一을 마련하는 礎石이 되자고 両側代表는 会談때마다 強調하고 이것을 基本精神으로 해서 꼭 이 会談을 성공시키자고 선언했으니 거듭 会談을 거듭하면서 서로 양보해서 이 問題를 百分之一이라도 해결해서 실천한다면 統一에의 門이 열리는 결과가 되므로 会談을 너무 政治的 比重에서만 취급하지 말고 人道主義를 根本으로 하되 会談을 成功시킬려면 所期의 目的이 全部達成은 못된다 해도 서로 양보해서 相対的인 人道主義立脚이란 立場만은 취하기가 곤란한 것이요 政治的인 立場을 取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最後의 統一이란 승리를 얻

을 수 있다는 強者나 大者의 立場에서 外交技術을 발휘해서 相対方이 납득할 수 있는데 까지 양보해서라도 人道主義에 의한 접촉을 成功시켜야 할 것이다.

㉮ 南北 自由往来

南北自由往来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나 事実은 不可能하다.

自由往来란 제한된 사람이 제한된 目的을 가지고 제한된 時間에 制限된 場所를 往来한다 하드래도 이것은 成功으로 보아야 한다.

離散家族찾기를 알선한 南北赤十字 共同委員会를 설치하고 両側本社内에 事務室을 두고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은 적어도 수시로 南北을 往来하면서 이 事務遂行에 不便이 없어야 한다.

또 일정한 許可를 받은 家族들은 一定한 장소에서 面談이 許用되고 目的한 離散家族임이 확인될 때에는 証明書를 発行하여 일정한 期間 自由로히 同居할 수 있도록 하되 政治的 行脚은 금할 것은 물론 相互面談前에 両側法律과 一定한 豫備教養을 반드시 실시하고 離散家族이란 이름아래 그나라 法律에 위반되거나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간첩행위등 엄중한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離散家族들은 일단 相対方 나라에 가면 신변보호 기타 活動에 保障을 받어야 하며 순수한 社会活動에 필요한 場所는 出入이 許可되어야 하며 그 定着에 대한 将来問題도 自由意思로 決定할 수 있도록 하고 定着후에도 과거의 신분에 대해서는 不問에 붙이는 것이 保障되어야 한다.

㈏ 南北 書信·通信 및 一般書籍 交換

南北間의 書信 및 通信交換은 人道主義에 立脚한 基本的 行為이며 緊張을 완화하고 相互信頼를 두텁게 하고 相互間의 体制와 理念을 理解하는 데는 거의 決定的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이 交流가 실시된다면 副作用의 発生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副作用에서 일어나는 国家的 피해보다는 国家的 利益이 더욱 클 것이며 統一의 前提가 되는 相互信用과 平和的 분위기 조성이 더욱 클 것이므로 書信과 通信交換은 統一이란 目的에

전진하는 데 제一步가 될 것이다.

書信과 通信交換은 우선 雙方間에 이로 인한 協定文作成이 必要하고 이 協定文은 그대로 実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実行을 검토하고 일어나는 副作用을 해소시키는 기능이 부여된 実務小委員会設置가 필요하다.

書信과 通信交換은 U.N.의 보조기관인 萬国郵便聯合(U.T.U.)과 国際通信聯合(I.P.U.)에 다같이 加入하거나 未加入国을 加入시키거나, 또 原則的인 方法 実行을 이 国際団体의 精神과 規定 또는 其他 国際慣例에 따르도록 먼저 分明히 규정지어야 한다.

여기에는 気象通報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気象通報도 世界気象機構(WMO)의 規定에 따라 相互通報를 교환해야 한다. 이 書信과 通信交流에는 당분간 相互間에 絶対自由를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一定한 時間이 지나고 相互信頼의 분위기가 성숙할 때 까지는 또 国家統一이 이룩되기 전까지는 相互理念과 体制가 엄존하고 있으니 一定한 事前検閲의 実施가 必要할 것이며 여기에는 当事国이

충분한 理解가 있어야 한다.

新聞交換에는 原則的으로 上記한 方法에 따라야 하며 PEN에 加入하는 문제와 교환부수 方法에 協定을 맺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交換은 段階的으로 離散家族부터 또 一定한 관계자들부터 서서히 始作해서 다른 統一에 관한 問題의 進展과 程度에 따라서 同時에 効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交流와 会談, 例를 들면 南北赤十字社会談, 南北調節委員会 其他 雙方間에 合意된 会談 또는 行事의 進行과 併行해서 고려해야지 무조건 南北間 書信과 通信 其他 通報자료만 교환한다면 그 実効를 얻기도 어렵고 自由体制를 유지하는 大韓民国에만 不利한 結果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

北韓은 閉鎖된 社会이고 철저히 統制된 体制이기 때문에 不利한 通信과 書信은 일마든지 国民에게 알리지 않고 一方的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文化·芸術·学術交流

文化·芸術·学術의 相互交流는 第一段階의 根本을 이루고 있

을뿐 아니라 나아가서 国土統一을 이룩하는 데 그 기반조성의 根本을 이루고 있다.

書信과 通信交流는 当事者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当事者에게만 局限되고 社会的 国家的으로 직접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적다.

小範囲의 단순 交換이나 이 文化 芸術 学術은 그 종류 범위가 許多하고 個人뿐만 아니라 団体的으로 社会的으로 国家的으로 광범위하게 作用하고 주는 영향도 막대하다.

따라서 第一段階인 民間人을 中心으로한 人道主義的 文化交流는 바로 이것이며 이 交流에는 事前에 충분한 협의와 相互信頼를 土台로 하고 民族的 聖約인 7·4 南北声明과 国土統一을 이룩한다는 民族的 良心을 토대로한 준비와 과정을 거쳐서 方法을 確定해야 한다.

먼저 文化問題는 무엇이 이것에 속하느냐의 종류·범위·형태에 대해서 相互決定지어야 한다.

可能하면 南北赤十字会談에서 離散家族찾기 운동이 成功되면 이

離散家族이 中心이 되어 文化·芸術 交流를 限定된 範囲内에서 하든지 여기서 委任받은 專門団体를 조직해서 여기에 一任해도 可能할 것이다.

南北調節委員会의 막대한 事業의 하나가 이 部門의 合意일 것이다.

이 交流를 실시하려면 먼저 別途의 專門合同委員会를 構成해야 한다.

여기에는 文化 芸術 学術界에서 參加해야 하며 이 合同委員会가 交涉団体의 選定·構成·인솔 費用 実行에서 일어나는 모든 問題에 責任을 짓도록 한다. 이 合同委員会는 相互意思発表가 自由로워야 하며 회의開催의 時間·場所·題目 其他에 全責任을 짓고 国家의 保證를 받도록 한다.

文化問題에는 共同開発 共同主催등 雙方間에 모든 問題가 共同責任으로 実行되어야 하고 여기는 순수한 人道主義精神에 立脚해서 同族끼리 相互交流라는 点을 강조하고 나아가서는 国土統一 단일국가 建設이라는 使命感에 立脚해야지 不純한 동기나 政治軍事的

또 宣伝만을 위한 伏線이 배격되어야 한다는 것은 7·4 南北共同声明 精神으로 볼때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 文化交流에는 관계되는 他国人의 参加도 許可되어야 하고 모든 費用은 相互均衡負担이여야 하고 調査 管理 出版 旅行에는 当事国이 便利를 제공하고 安全을 保障해야 한다.

芸術交流는 両国에 設立된 芸術団体에서 주관하고 政治的 性格을 띈 作品은 반드시 피하고 순수한 芸術이여야 하나 이 芸術이 미칠 수 있는 結果에 대해서는 相互不干渉原則이 樹立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芸術의 種目 作家 출연자 이 모든 일은 事前에 엄선되여야 하고 人道主義에 立脚한 交流라 할지라도 権威있는 団体로부터 事前訓練과 相対方에 주는 効果에 대해서도 충분히 討議가 되어야 하며 이러기 為해서는 우리側 芸術団体内에 이에 관한 委員組織을 두어야 한다.

이 芸術交流에는 当事国에서 展示 講演 이에 관한 出版物 교환 상연·방송이외에도, 관계되는 第三国에서도 展示 講演 출판물 교환 상연등이 共同으로 할 수 있게 되여야 하며 이것은 우리가

南北統一을 이룩하는 데 主体的 民族力量을 발휘하고 南北統一에 대한 国際輿論을 환기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特히 民俗芸術에는 民族固有의 伝統的 芸術性을 보이기 為하여 国内는 물론 국외에서도 널리 紹介될 수 있도록 共同 組織体를 별도로 가져야 한다.

学術交流는 大学을 選定해서 大学単独으로 하지말고 全体大学聯合으로 하고 政府機関은 여기서 除外되여야 한다.

相互間 科学発達을 為한 学術理論 情報資料 施設의 展示交換이 필요하다.

教育制度의 研究 視察 또는 이에 관한 共同研究가 필요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相互理解라는 範囲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自己側에 대한 建議나 制度改善이 合目的이 되여서는 안될 것이다.

各 大学에 부설되여 있는 研究機関이 共同으로 研究에 参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分野의 活動이나 交流는 어디까지나 親善 団合 그리고 民族統一이란 大課業의 基礎가 되는 예비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点에서 満足할 수 있는 交流가 되여야지 等数나 우열

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점은 참가자들이 먼저 分明히 해야하나 北韓側에서 순수한 立場을 떠나서 政治的 선전과 共産主義 理念을 떠나서 政治的 선전과 共産主義 理念의 간접적 주입을 目的으로 한다면 이것은 곧 中止되어야 하고 設置된 共同委員会에 보고되여 종말에는 南北調節委員会에서 이 問題가 調節되며 다음 交流에 즉각 반영되어야 한다.

文化 芸術 学術 交流에 대해서는 人間의 知性과 良心을 対象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다 해도 사실상 주는 영향력을 無視할 수 없는 일이므로 우리 文化 芸術 学術이 国家的 보호아래 国家的 責任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文化自由 芸術自由 学問의 独立은 표방하지 말고 国家的 使命과 国家的으로 우리 固有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民族속에 뿌리박은 一貫精神을 고취할 수 있는 自体내에서 정비統制가 整備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한 先進国의 模倣, 民主主義의 導入 国家現実에 부합되지 않은 超現実的인 理想을 南北統一이 実現될 때까지 또한 南北統一이

実現되여서라도 배격되여야 한다.

統一의 相対가 北韓이므로 北韓은 統治上 강요되었다고는 하나 民族至上과 主体性이란 점에서는 비록 후진적이고 全体主義的으로 획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측과 실지로 접촉 교섭 合流가 始作될 때 全体国民의 大衆性을 띌때 북한측이 더욱 宣伝効果를 얻을 수 있는 要素나, 이 엄연히 現存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共産北韓과의 対決에서 이점은 미리 충분히 고려해서 国民精神을 이점에 총집결하고 国内体制를 정비하고 外国式 民主主義가 韓国式 民主主義로 発展하고 北韓이 現実不可能한 統一方案으로 내습할 때 우리는 挙国一致로 이것을 是正시키기 為해서는 国力이 相対方보다 우월해야 하고 国民精神이 더욱 強해야 하고 国際輿論의 支持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함으로 維新이란 発展을 위한 一大変化는 오히려 晩時之嘆이 있었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도 늦은 것은 없으니 이런 整備된 体制로 発展해가고 自然的 交流가 하나 하나 北韓측에 침투될 때 北韓内에서 서서히 自由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은 天地의 自明한 섭리이기 때문에 文化 芸術·

学術 実務者가 이런점을 自覚해야 한다는 事前実力과 訓練이 具体化 되어야 한다.

㈑ 体育交流

南北間 体育交流는 가장 용이한 일이나 原則的으로 南北韓이 戦争状態로 敵対関係에 있으므로 무슨 交流든지 感情과 緊張이 対立되어 있으므로 쉬운 일이 아니나 그中에도 스포츠 交流는 비교적 용이하다.

体育自体가 政治性을 排除한 운동정신에 의존한다고 하나 統制社会에서는 이 体育조차도 엄격히 統制되여 있으므로 交流에는 時日과 交渉이 걸릴 것이나 南北声明精神에 입각하여 다른 分野의 交流보다는 가장 용이할 것이라는 것이 衆論이나 体育交流에는 国内交流 対外交流 또는 단일참가팀 구성문제가 있다.

교류가 용이하나 또 感情의 対立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또 体育이다.

体育의 交流가 相互間에 있을때 까지는 会談을 통해서 長時日

関係者의 理解는 물론 이것을 자세히 보도하고 相互社会 実情을 올바르게 보도함으로써 마음의 緊張緩和와 相互間에 이해하는 분위기 조성이 実行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양측의 体育会가 主動이 되어 合同交流委員会를 結成하고 여기서 南北調節委員会 指導아래 体育交流의 細目을 確定해야 할 것이다.

다른 地域에서의 対戦도 있을 수 있는 일이며 大国的 見地에서 또는 南北共同声明과 원래 単一民族이라는 精神에서 相互間 出戦 또는 対戦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사가 스포츠精神에 立脚해서 進行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体育交流의 状態가 어느정도 계속되면 単一팀 構成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

단일팀 구성에는 制服 명찰 国旗 国歌 인원배정 경비등 実際的 難問題가 山積해 있으나 南北韓 緊張만 완화되면 充分히 考慮할 수 있는 問題이다.

여기에는 단일코치 또 合同訓練 合同研究等이 先行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이 体育交流는 소년·소녀운동팀부터 交流하는 것이 더욱 効果的일 것이다.

이것은 운동의 순수성을 망각하고 흔히 感情유발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方法일 것이다.

그 다음은 大学生 스포츠교류가 바람직하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 経験을 토대로 해서 成人팀 또는 国家代表팀의 交流가 바람직하다.

体育交流는 直接交渉도 南北調節委員会를 통해서 할 수 있으나 国際올림픽委員과 기타 종목별 국제 機構의 공평한 알선에서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며 単一팀 構成도 民族統一만 真実로 양측에서 원하고만 있으면 実務的인 난관은 그리 問題가 되지 않을 것이며 体育交流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워질수 있으며 이것이 出発点이 되어 기타 分野의 交流交渉도 차차로 達成할 수 있고 이것이 지속되면 직접 国力과 国民生活에 영향을 주는 経済交流가 이루어지고 経済交流가 数年間 이루어지면 統一会談도 진지하게 열수 있다는 것은 自明한 理致이다.

다만 共産国家가 과연 統一을 願하고 있는가 統一問題를 政治的으로 利用만 하고 있는가, 実은 統一을 바라지 않고 現状의 維持를 바라면서도 政治的으로 統一을 원한다하는 것인가는 時間이 경과하고 接触交渉을 거듭함으로써 分明해질 것이나 이런 우리측 立場을 北韓側이 逆利用해서 宣伝攻勢를 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体育交流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앞에 体育人들의 自由相互接触이 保障되어야 하며 이며 이러기 為해서는 南北調節委員会에 進展에 따라서는 体育分科委員会등을 設置할 수도 있을 것이다.

㈐ 各種 視察団 交流

南北赤十字社의 알선으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찾기운동 이외에도 書信·通信·文化·芸術·学術関係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단순히 民間人들로 構成되는 南北韓視察団(実은 南北韓社会의 실정과 명승고적을 찾는 관광단의 성격을 띄우겠지만)을 구성해도 좋을 것이다.

남북한의 국가적 행사나 각종대회에 동일 직종의 분야에서 시찰단을 교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법도 우리 3단계 통일방한의 具体化의 제1보인 人道主義에 立脚한 가족찾기 운동 또는 순수한 学·芸術, 文化 체육교류의 달성에 간접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또 他国에서 개최되는 行事대회, 학회, 박람회에 미리서 南北韓 単一視察団 또는 단일화된 파견원을 참여 시킬수도 있을 것이며 이 모든 조치가 交流의 실질을 이룰것이며 이런 교류가 성취될때 南北統一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나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

각종 시찰단파견은 역시 학생들의 수학여행식으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学生들의 文化·芸術·学術·体育·일반 見学団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모임이 차차로 成人社会의 상호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前에 学生들에게 相対方의 실정과 우리들의 주체의식에 입각한 애국정신의 투철한 사전교육을 남북조절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제1단계의 교류는 학생을 中心으로 해서 성취시키는 것도

구체적 방안으로서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 UN 其他 国際機構 共同加入

현존하고 있는 국제기구중에서 순수한 文化·芸術·体育에 관한 단체가 많이 있다. UN의 보조기구중 UNESC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만국우편연합(UPU), 국제전신연합(ITU), 세계기상기구(WMO)등에 相対方이 加入을 할려고 하는 문제는 現在의 国是로서는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있으나 장차 상호교섭이 진전되고 남북조절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룩되고 南北적십자사회담이 人道主義에 입각해서 그 성과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때 또 38선 緊張緩和가 이루어지고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이 준수되고 북한실정이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될때 국제기구중 우선 上記한 UN보조기구에 북한이 加入할려고 할때 우리측의 立場을 再考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타 무수한 民間団体에서는 모든 실천과 회담의 성과를 고려해서 가입에 반대할 必要도 없고 오히려 이것이 장차 南北統一에 기여할 수 있는 民族和解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正統政府이며 強者의 아

량으로서 大韓民国이 反対하지 않고 적극 찬성하는 일까지도 예견된다. 국제기구 가입문제는 地域的同盟 또는 軍事的 政治的同盟을 除外하고 민간기구나 순수한 親善機構 또는 UN의 文化学術関係機構에 北韓이 加入한다든가 우리측과 同時加入 문제도 일어날수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동시가입문제를 꼭 反対할 必要는 없고 理念과 체제가 相異하다 할지라도 大国的 見地에서 우리측에 이익이 예상되면 小를 버리고 大를 取한다는 立場에서 과거의 방침을 변경시켜야 한다.

㈏ 보건 의료救護에 関한 交流

보건과 의료 또는 질병예방에 관한 교류는 어느 의미에서는 제 1 단계의 교류 중에서는 시급히 実行해야할 問題일지도 모른다. 赤十字精神에 立脚해서 南北韓의 水害, 한해 또는 질병이 発生하고 天然地変이 생겼을때 즉시 기술자나 구호품을 발송하고 그 복구에 협력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은 南北赤十字가 現在 会談이 成功해서 그 실천에 들어 갔을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元来의 赤十字社 업무에 상호협력하고

공동책임하에 南北韓 의료단 파견 약품구호물자의 수집발송, 식량의 수집발송, 보건에 관한 공동연구, 공동해외 파견도 가능하다. 南北調節委員会의 진전에 따라 이 보건에 관한 교류는 이산가족찾기 및 재결합 文化·学芸術交流, 体育交流와 併行해서 調節委員会에 別途 専門委를 설치하고 国内総力을 여기에 경주할때 우리 방침의 제1단계에서 상호신뢰 緊張緩和의 성과는 至大할 것이다. 이 보건交流는 UN의 "WHO"의 協力을 구해야 한다. 또 国際 赤十字社의 協力을 求해야 한다. 여기에는 相対方 서로가 그 必要를 느끼고 南北統一이란 使命앞에 소소한 感情을 버리고 진실로 民族自主의 原則에서 궁극적으로 民族의 平和統一을 이룩한다는 신앙적철학이 모든 国家의 기본 방침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民族統一, 南北統一을 하나의 고도의 정치기술로만 利用하고 하나의 次元높은 선전자료로만 内心 일삼고 있다면 우리 정책의 수립과 구체화 방안도 하나의 가공적 小説에 불과하게 되니 모든 것은 모처럼 始作되고 창구가 열린 이 南北対話를 더욱 진전 시킬수 있는 雙方의 政治力量과 国家的 使命感에 달려 있으니 具体化 방안도 회담의 진전에 달려 있다. 보건에 관한 交流는 思想과 理念을 초월한 南北交流에서 가장 극적인 効果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 相互間에 이것은 일종의 民心和平策으로서도 상대방의 真意를 타진하는

데에서도 큰도움이 되는 方法이고 현실을 무시하고 일약 政治, 軍事해결을 도모할려고 하는 方法이 선전적이고 結局은 통일을 願하는 길이 아니고 통일을 방해하는 길이다는 것이 国内外에 폭로될 것이다. 오랜 세월에 걸친 불행한 敵対関係에서 民族的 使命으로서만 南北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을 政治的 구호만 내걸고 그 실정을 무시하고 外交라는 方法을 무시한 방법이다는 것을 実証으로서 相対方에 말해주고 우리측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国内外에 우리의 正統性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중에서도 이 보전에 관한 방법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南北赤十字会談의 다음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南北調節委員会의 중대 관심사로 만들어야 한다. 보전과 구호에 관한 交流는 事実上 多方面에 걸쳐 복잡하고 더구나 통제된 社会상태에서는 이것마져도 人道主義에 입각한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실제 회담을 구체화시키는 데는 난관이 예상되나 南北赤十字会談의 使命을 다 하겠다는 고위지도층의 人道主義에 입각한다는 단순한 정신자세만 확립되면 또 용이하게 해결될 것이 예상된다.

② 才二段階 (經済的 交流의 실천)

㉮ 남북한 물자 및 상호무역

南北韓이 相互間에 물자를 交流한다든지 또는 상호무역을 개시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통일의 구체화방침 제1단계에서 記述된 諸条件이 어느정도 원만히 結実을 보고 이것이 순조로히 진행되여 남북한 상호신뢰나 7·4南北共同성명의 精神이 誠実히 이행되는時期에 고려될 수 있다. 절대적 교류는 文化的交流란 才一段階의 해결이 이루어진 후에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물자교류에는 種類, 数量, 価格, 方法, 수송 관리등 이 모든 문제를 전문으로 다룰수 있는 合同 経済조정 委員会設立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쌍방에 공동사무국을 설치하고 관계자는 남북한을 수시로 自由로히 왕래하면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물자를 선정할 필요 있다. 남북한 경제이념과 경제제도가 서로 判異한 만큼 이 문제에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서 상호간에 이익이 된다는 점만을 고려해야지 이것이 직접 간접 군수물자에 관계하거나 정치적 복선 또는 양국의 経済力을 직접배정하는 方法

이나 수단이되면 이문제의 実現은 不可能하다.

才一段階에서 기술할 구체화 방안중 보건에 관한 交流 特히 의료원과 구호물품의 交流를 확대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무역에는 관세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부수되기 때문에 才三国과 同一한 형태의 순수 물자를 期待하기 어렵고 南北共同성명 정신을 살려서 相互必要로 하고 부족한 物品을 교류해서 同族愛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文化,学芸術 交流가 이루어지고 체육 교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才三国에는 단일단체로서 참가 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도달했을 때 부수적 행위로서 이루어져야지 정상적인 전반적인 경제交流는 政治的統一이 달성될때 까지는 不可能하다는 事実을 念頭에 두어야 한다.

㈏ 経済 共同開発 및 共同研究

남북 상호물자를 교류하고 기초적인 무역이 약간 이루어질때 병행해야 할 일이 남북한 관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共同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이것도 相互間의 국력과 경제이념

이 判異하므로 실천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경제단체 보다도 대학의 경제학자가 서로 共同委員会를 조직해서 학술교류라는 점에서 이루어지기가 보통일 것이며 경제정책에 상호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광지 공동개발 통제적 요전 공동조사 농수산공동증산과 품종개량 교통수단의 공동개발 광산공동경영등을 예상할수 있으나 생산수단이 국가에 규착되고 전체주의 기획경제의 共産国家와의 교류에는 事実上 난관이 많으나 문제는 이것도 同族이 거의 남북한교류라는 精神에 서로 투철하기 前에는 어려운 일이고 보면 역시 남북간의 긴장완화 특히 군사적 손실의 中止 상호비방의 中止 상호체제의 이해라는 문제해결이 있는 후에야 모든일이 가능하다는 원점에 되돌아 가고 보면 남북적십자사회담의 성공과 남북조절위원회의 실질적 진전에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할때는 南北韓물자 交流 및 상호무역이나 또는 이러한 形成의 去来가 才三国을 通해서 소위 삼각무역형식을 취할수도 있으나 남북통일과업의 예비로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 가령 소기의 성과가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시 南北

直接交流에서 서로 경제적으로 보완하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実情을 파악하고 社会制度의 장단을 직접보고 언어와 관습이 동일한 동일民族이 비합리적으로 격리되여 있다가 이제는 통일해야 된다는 信念을 長時間에 걸쳐서 実感나게 상호간에 느끼게 할수있는 하나의 수단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경제 공동개발과 연구는 사실상 분단 국가로서 合同해서 개발하고 연구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한 분제부터 시작해서 특히 南北調節委員会 사무국에서 책임지고 선정해서 그 성과를 정책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시범으로 양측 経済学者, 경제단체, 경제무역인에게 자진 참가할 수 있게 해서 그 해국을 서서히 심중히 확대해 나갈수 밖에 없다.

㉰ 経済 技術科学의 情報交換

경제와 기술정보는 서로 비밀에 속하는 것이므로 역시 신뢰와 통일에의 정열이 어느정도 성숙해야 이루어진다. 남북공동단체로 해서 선진국 경제기술의 발전과 훈련에 참가 시켜야 한다.

이것은 수입국의 協力이 필요하기 때문에 中立主義的 先進国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人道主義的 精神에 입각해서 이산가족의 소식과 상호교분이 이루어지고 단결함이 自由主義로 이루어지고 서신통신이 이루어지고 자유래왕이 이루어지는 상황속에서 경제문제가 제2단계로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기술정보 교섭은 그런 시기를 택해서 양측에 상설기관으로 설치하고 통일속에도 이 기관은 항구적 기관으로 존속시키는것이 더욱 効果的일 것이다.

經済 技術정보교섭은 완전히 순수한 경제인과 과학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経済交流란 事実上 政治交流와 同一하며 완전히 경제가 교류되고 물자가 교류되고 여기에 대한 개발연구가 공동체임하에 이루어지고 経済技術정보를 서로 더욱더 많은 발전을 위해 성취할 정도라면 사실상 정치문제가 용이하게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의미하나 현재 사회생활은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고 정치행위는 경제행위에서 거의 決定的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사실상 帝国主義나 식민지주의 思想의 対立은 사라지고 경제경쟁시대 또는 무역전쟁 時代이기 때문에 참으로 政治的 統一을

회구한다면 경제적 통일이 이룩되어야 한다. 経済的統一이란 관념상으로도 용이한 일이지만 경제적 부흥의 理念을 초월한다는 民族的 양심만 견지한다면 공동개발.공동연구.물자교류등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経済技術의 정보교환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기전에 제1단계의 학술교류때 경제학자끼리 충분한 학술적 토론이 先行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체제의 経済와 自由主義 경제체제의 異点을 비교해서 상호장점을 가미한 제3 경제체제 즉 자유적이면서도 국력배양에 직결될 수 있고 38선의 긴장이 상존한 이상 이것을 힘으로 뒷바침 할 수 있는 경제와 유신과업을 완수하고 농어촌에 비해서 낙후성을 면할수 있는 점에서 전체 기획주의적 경제체제의 立案과 이의 실행을 예상한 理念의 경쟁에서 어느정도 우리측의 自信과 발전이 있을때 이문제의 공동연구가 필요하게 될것이다. 南北調節委員会나 공동 사무국에 국내각계에서 참가하고 사실상 거국적 세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실효는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북한측은 이미 이 조절위원회의 구성에 모든 사회정당이 참가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순수한 政治発言이요 남북조절 위원회가 그 기능을 아주 발휘하지 못하고 초보적 구성과정이기 때문에 政治討議 내용의 合意와 진전에 따라 그 성과를 검토하고 단계적 통일정책이 구체화 됨에 따라 이 조절위원회는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기에는 먼저 남북공동성명정신의 지지와 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돌연히 북한측이 통일정책을 변경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에 위반되는 정치적 발언과 비난만 일삼는다면 7.4 남북공동성명을 하나의 기만술책이요 대체적으로 선전효과만을 노리면서 전쟁준비 태세를 완료하고 남한은 평화적 통일이 아니고 민족통일이란 미명아래서 무력통일을 기피하기 위한 時間을 얻기 위한 政治的 연극에 지나지 않을 것이나 이것이 明白히 事実化될때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통일정책을 추구 해야 할것이다.

㉮ 共同経済会議 및 経済組織体의 構成

共同経済会議는 南北韓 各大学研究所에서 主催하고 또 교대로 개최한다. 이것의 절차나 진행은 南北赤十字会議式으로 하는

것이 効果的일 것이다. 또 海外에서 개최하는 경제회합에는 共同으로 또는 단일체로 참가 할 수 있으나 여기에 참가하기 전에 양측이 회합해서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예비회의를 개최한다. 経済組織体는 주로 양측 상공회의소가 주동이 되고 이 外에 각종 경제노동조합이 상호시찰 訪問하고 북리증진을 위한 目的下에서만 공동조직체를 구성하고 이 모든 조직체는 어디까지나 남북통일을 위한 상호이해 및 親善이 目的이지 그 以上의 目的을 가질수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교섭은 조절위원회의 지도 아래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理念과 体制에 불구하고 非敵性 共産国家와도 交渉을 한다는 것이 우리 방침이고 또 世界国際社会의 조류고 보면 우리 경제계획 수행과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북한측과의 교섭은 다른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南北調節委員会主導아래서 経済会議.경제학술계의 토론, 경제시찰 산업능률증진연구.산업재해문제 연구와 여기에 부수되는 각종 보험단체 취업요건 개선을 위한 연구회등 모든 문제가 다루어질수 있을것이며 또 다루어져야 제단적

統一政策의 수립과 그 具体化 実行이 가능하고 설사 상대방에서 일시에 정치·군사 해결 문제를 들고나와 통일방해의 큰 원인이 군사력과 미군 주둔 또는 他国의 경제협조에 있다고 할때 우리는 민족주체적 통일이 하나의 이상론이며 여기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분위기 개선 경제자립이 선행조건이 되므로 정치회담의 성격을 띈다할지라도 그 내용의 토론에 있어 정치적 効果를 期待할려면 역시 인도주의적 교류 経済교류가 자연히 併行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시일이 경과하고 우리측의 설득과 선전이 효과를 거두고 국력이 배양되어서 자유경제 体制가 事実上 共産体制보다 우위에 서있다는 것을 実証하면 統一을 바란다는 北韓側에도 이런 단계적 교류와 개선이라는 것이 결론을 초월해서 사실 필요한 과도적 조치라는 것을 自覚하게 될 것이나 단계적 분위기 개선을 否定하고 政治的 해결만 고집한다면 진실로 統一을 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実証되여 국제여론 앞에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며 서방측과 서서히 関係改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련·중공 기타 공산국가와의 고립 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다.

㈐ 海外市場 共同開発 및 協力

海外市場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또 공동으로 개발하여 南北韓 両側과 経済交渉을 하기 위해서는 南北韓相互間에도 우선 前記한 바와 같은 경제정보교환이나 물질교류 상호무역 기타 経済成長에 대한 具体的 協議가 이루어지고 이의 실천이 어느정도 진전되였을 때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国情에 따라 南北韓을 同時에 승인하는 나라나 동시에 승인하지 않고 있는 나라나 어느 一国만을 승인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南北韓이 共同으로 海外에서 市場開拓을 위한 경제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政治的배려가 뒤따르기 때문에 곤란이 예상된다. 우선 남북한을 동시에 승인한 나라 부터 관여하는 것이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国際経済機構에 共同으로 加入하는 문제가 必然的으로 発生하게 된다. 우리 大韓民国은 국위가 날로 선양되고 국제적 지위가 향상될뿐만 아니라 UN에서 유일한 合法 政府로 承認을 받고 있으므로 南北統一

에 대해서는 우리가 主導権을 잡고 적극성을 보여야 하며 모든 種類의 회담과 交涉이 어느정도 진보되고 南北共同声明 精神의 具現에 대해서 北韓이 誠意가 있다고 인정될때 통일이란 大国的 見地에서 모든 국제단체에 共同으로 加入하는 문제를 심중히 고려해야 할 時期가 올 것이다. 赤十字社나 국제올림픽委員会에는 이미 加入되여 있고 北韓을 承認하는 나라와 修交를 正式으로 고려한 나라가 增加하고 있는 現 時点에서 国会議員연맹(IPU)에 北韓의 加入이 決定될 것도 시일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면 政治的問題는 후일로 미루더라도 경제문제 공동연구 조사와 합동사무소 설치 또는 合同展示会 開催등에 호응하는 우리측의 능동적 방침이 요구된다. 이것은 제1단계에서 구체화된 문화.학술.芸術交流를 주관하는 공동사무국이나 공동위원회가 발전적으로 그 사업을 관장해도 좋고 또는 별도로 조직체를 구성해도 무방할 것이나 南北調節委員会에서 主管하고 7.4南北共同声明精神에 충실히 立脚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南北韓間에 기술을 교류하고 合作投資保税産業.南北共同外資導入

등 우리나라가 현재 국내법과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외국과 제휴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남북한 經濟実情에 맞는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이것을 토대로해서 공동으로 海外수출, 経済進出을 할수 있을 것이다.

㈑ UN 및 其他 経済国際機構에 加入하는 問題

UN 기타 국제경제기구에 南北韓이 共同으로 또 各国 별도로 加入하는 문제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와 상호간에 合法政府를 주장하고 국제법상 国家承認이 있을수 없다해도 実存하는 하나의 政治集団으로 잠재적이나마 승인을 하지 않고서는 국제기구에 加入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미묘한 문제가 야기 된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무역기구(ITO), 국제해운협의기구 등 국제기구 이외에도 많은 大小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 가입은 절차와 국내정치 사정으로 가입 한다는것 또는 현재 북한측 가입을 座視한다는것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있을수

없으나 공동가입 이전에 共同調節委와 共同行動은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것이 허용되도록 상호간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하고 이 분위기가 조성될려면 相互間 統一의 大業에 대한 信念이 확립되는 수 밖에 方法이 없다.

第一단계의 교류는 政府의 직접개입이 없어도 실현이 가능하다. 文化, 体育, 学術, 芸術, 보건관계 관광시찰, 이산가족을 위한 여러 조치 一定한 한도의 自由왕래, 서신과 통신의 교환, 기술정보교환 단일합작단체로서 통일을 위한 제1단계 조치로서 가능하다는 말이다. 양측이 사회적 봉건성과 경제적 후진성에서 출발했고 현재도 완전히 先進의 대열속에 끼여 들지 못하고 더구나 사상과 統一方法의 差異로 북한측이 6.25 동란을 도발하고 그후 휴전이 되였지만 사실상 전쟁과 다름없는 긴장상태에서는 통일이란 하나의 민족적 숙원은 될지언정 自主的 統一은 거의 不可能하다는 것이 사실이나 독일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구라파 사회에서 상호전쟁과 도발의 긴장상태가없고 統独에 대한 관계, 강대국과 적극적 지지가 있는 나라도 統独이 차라리 힘의 승패에서 어느 一方을 지지한다

는 方法을 택한다면 문제는 없을지 모르나 平和的 統独이 理想이고 보면 統独自体에도 不可能에 가까운 実情을 부인할 수 가 없다.

南北韓 統一은 통일을 포기하고 차라리 분단국으로서 만족한다면 모르되 통일을 원하고 통일이 꼭 달성되어야 한다는 当然性으로 볼때 또 統一이 世界平和에 아시아平和에 꼭 필요하다고 할때 꼭 실현해야 하며 一次的으로 민족자체의 노력이 수립되어야하고 관계 강대국의 지지가 二次的으로 併行되어야 한다.

이 모든 문제가 남북한에서는 일정한 준비기간, 일정한 냉각기간 일정한 상호이해와 화해 분위기를 위한 국내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지 이런 선행조건을 초월하거나 무시하고 현상의 남북한의 통일을 바란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결국은 공상진영의 정치적 계략에 휘말려서 하나의 자주적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가二단계의 경제교류는 간단한 물자교류나 구호품전달이나 표본상품의 교환정도 같으면 모르되 근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대규모 경

제교류 국제사회에 진출해서 무역경쟁과 경제전쟁에서 낙오없이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 참으로 곤난이 예상된다. 가二단계의 경제교류가 성공하면 제3단계의 정치통합은 연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단계의 경제교류는 구체화 방안을 여러가지로 검토해 봤으나 이 방법은 정치문제와 완전히 분리해서 고려할 것이 아니고 제3단계의 구체화 방안과 거의 동시에 다루는 것이 교섭기술과 정치목적달성 즉 통일을 이룩하는데 효과적 방법이다. 경제교류에서 공동번영 상호특혜를 이룩하고 다음 정치문제를 다루는 것이 방침과 진보순서로서는 타당한 일이지만 통일교섭의 기술로 보아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또 통일작업이 진행되고 우여곡절 끝에 남북적십자사회담와 남북조절위원회 사명이 어느정도 본 궤도에 올라 자타가 공인할 수 있도록 성과가 눈에 될때 이 제2단계의 경제문제와 제3단계의 정치문제는 구별할수도 없을 것이요 또 구별할 수 도 없게 될것이다. 또 이것이 북한

측 통일방법을 유화시키고 우리측 입장에 접근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人道主義精神에 입각한 才一단계방법과 정치적 해결 즉 사실상 국토 통일의 완성과 통일 중앙정부수립의 才三단계 방법의 중간단계는 체제가 상이한 남북한 經済実情에서 구체案으로서 제일 곤란 할 것이다.

공산 경제체제란 자유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자유소유, 자유 계약이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이란 목표와 이념이 또 다르다, 경제 자립과 국가부흥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선진 重工業国家群과의 교섭도 그 방법과 생각이 다르다. 따라서 아무리 구체화 방안을 수립해도 참으로 일치된 경제 등의 통일은 불가능 할 것이다. 이런경우에는 진정한 경제정책수립은 통일정부에 미루고 통일정치 회담의 분위기와 민족화해에도 도움이 되는 한도내에서 실시하고 그런정도의 성과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③ 第三단계 (政治的 統一과 会談)

㉮ 国土統一 共同協議会 설치

国土統一에대한 우리의 기본방침인 第一단계의 人道主義的 問題부터 文化 学術 芸術交流에 이어 第二단계로 経済 産業 工業의 復興発達을 為한 相互協力 또는 交流를 実現시키고 긴장완화와 相互体制의 理解로써 長時間에 걸친 敵対関係를 清算하고 그다음 決定的 시기에 政治問題 解決로써 南北韓再統一이란 民族的 聖業을 達成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측 哲学과 国家的 利益을 위해 可能하다고 判断되는 統一政策의 개요이다. 어디까지나 우리立場에서 수립된 具体的 統一方法이다. 이 統一方案은 너무나 理念과 体制가 相異한 共産側을 相対로한 方案이기 때문에 共産側 立場과 真意와 그 実情을 正確히 判断해서 交渉過程에서 相対方도 納得할 수 있는 方案提示가 必要하다.

第一단계, 第二단계의 우리측 主張이 관철되었다 하드라도 第三단계인 政治交渉에서는 또다른 意味에서 허다한 애로에 直面할것이다.

政治的統一의 단계에 도달하기 까지는 우여곡절 그리고 長時日이 소요될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兩側이 기필코 国土統一을 이룩하려는 使命感만 투철하면 결국은 政治会談 개최까지 이루워 질것이다. 이政治交涉이 시작되면 우선 国內体制의 強化整備가 있어야한다. 体制의 整備強化란 憲法上 統治機構의 変化또는 強化를 말한것이 아니고 精神武装의 強化 国軍의 힘의 強化 즉 現代化, 우리 社会制度가 経済面 文化面에서 北韓보다 우위다는 実証과 擧国一致의 体制完成을 말한다. 그다음 南北調節委員会를 南北統一共同協議会로 개칭하여 凡国民的 参加로 拡大強化해서 具体的 政治目標를 提示하고 統一에 관한 모든 問題는 이共同協議会에서 결정처리 하도록 해야한다.

南北統一 共同協議会가 双方合意로 設置되면 이와 竝行해서 南北韓이 同時에 参加할수있는 国際会議를 개최하되 여기는 日本 中国 蘇聯 美国등 관계四大国이 参加해서 南北韓 統一을 国際的으로 확인시키고 国內에서 民族主体的으로 解決하려고 하는 努力에 대해서 強大国 責任이 부수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이協議会는 명백한 協議

会 自体의 性格規定 参加範囲 기타会議節次등 물론 어려운 점을 充分히 예상할수 있으나 이것역시 南北統一이란 大使命에 투철한 国民的信念만 고수된다면 解決될수 있을것이다. 이協議会의 개최중에는 南北韓의 軍事的対決 기타 힘의 優位에 입각한 行動은 일체 存在할수 없으므로 国土統一 共同協議会內에 合同軍事委員会를 설치해서 수시 相互간의 軍事的增強이나 38線에서의 도발이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 이協議会가 実質的 成果를 거두려면 長時日이 要할것이나 協議会 進行中에는 특히 理念과 体制에 관한 宣伝이나 言論보도는 서로 自重해야 할것이다 政治的統一을 具体化하기 위해서 第3단계의 政治会談 進行中에는 文化交流 経済合作등 両側이 事実上 単一体制의 기초가 어느정도 成立되고 両側指導者간에 理解가 깊어진 상태가 되어있어야 이会議는 成果를 거둘수 있다.

㈏ 統一 選挙管理 委員会 設置

国土統一 共同協議会의 重要課業은 南北総選挙의 実施에 대비하는 일이다. 南北韓을 統一해서 統一政府수립에는 総選挙実施가

先行条件이다. 이 総選挙는 南北韓 土着人口 比例로 秘密直接 投票이고 UN감시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全国民은 投票의 自申가 保障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不利한 実情을 잘알고있는 北韓側은 選挙実施前에 美軍철수 양군감축 그리고 소위平和와 民族解放運動에 관련된 일체 政治犯 즉각 석방을 고집할것은 分明한 일이고보면 이모든 北韓側 主張이 南北 自由選挙 실시를 사실상 不可能하게 한것이며 宣伝에 따라서는 南韓側의 不応과 고집으로 統一選挙実施가 불가능 하다고 世界与論을 誤導할 우려도 없지않다 또 UN감시에 대해서 北韓이 그権能을 認定하지 않고 UN감시를 他力干渉이며 自体選挙을 방해하는 外勢干渉이라고 規定할 것이나 이런 問題는 事前에 충분히 토의되고 南北調節委員会 또 国土統一共同協議会에서 그解釈과 範囲가 規定되여 있어야 할것이다 UN감시하의 総選挙는 절대로 필요한 일이며 北韓도 UN을 現在는 認定하지않고 있으나 国際的 地位向上과 黙示的 UN認定으로 UN의 合法的 介入은 그 憲章精神으로 끝까지 반대 못할것이며 사실 北韓의 政策変更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으며 西方国家와의 手交및

経済交流에 점차 接近해 가고 있는 実情으로보아 UN監視団 또는 적어도 国際監視委員会 構成에는 賛成할것으로 믿어진다.

美軍撤収와 相互軍縮은 사실상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現在로써 美軍撤収는 생각 할수도없고 美国의 対韓公約으로보아 国軍現代化가 완료될때 까지는 주둔이 필요하다고 宣明되었으나 美国自体의 政策変化에따라 언제인가는 韓国서 美軍이 撤収할 것이므로 여기에 대비하고있는 우리나라는 国軍増強 国軍裁縮이란 北韓側의 태도와 軍事的도발 또는 戦争準備 여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도 北韓과 相対的 관계에 있기때문에 문제는 없을것으로 본다

統一政府를 樹立하기 위해서의 制憲議会構成이 必要하고 이制憲議会 構成을 위해서 南北韓 総選挙가 実施되기 때문에 이 総選挙의 成敗가 곧 중대한 交叉点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南韓은 南韓대로 合法性을 주장하고 北韓은 北韓대로 合法性을 주장해서 두개의 合法政府가 하나의 合法政府를 樹立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総選挙도 아니고 또 이選挙에서 単純過半数를 차지한 側에서 任意로 政府를 樹立한것이 아니므로 民族分断을 再統一해서 原点으

로 되돌아가 하나의 合法政府를 樹立한다는데 目的이 있으니 相互既存理念과 体制를 固執하고 이것을 強要하는 共産式 指導方式을 절대로 排斥되어야한다. 全体国民의 自由意思와 選択에 따라 樹立된 政府라면 民主主義의 原則에서 여하한 理念과 体制를 가진 政府라 할지라도 이것은 容認되어야 하므로 選挙節次나 方法은 결코 용이한 일이아니고 또 分断国家로써는 統一을 위한 처음選挙이기 때문에 순탄한 進行만이 예상된다고 결코 할수없지만 統一을 위한 総選挙는 統一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할 選挙이니 統一을 願하는 側은 統一選挙를 순수히 받아드릴것이요 統一을 선전의 目的으로만 하고 실은 統一을 바라지않고 오히려 분단된 현상을 유지하면서 政権은 유지하려고한 저의가 있는측은 결국 統一選挙를 여러가지 理由를 내걸고 반대 또는 지연시킬것이 明白하니 統一의 기운이 성숙하고 世界与論이 統一을 적극 지지하는 方向으로 大勢가 決定되면 南北韓의 統一을 위한 総選挙로 実現이 可能할것이다 문제는 統一後 樹立될 政府의 성격과 選挙에 参加해서 어느정도의 승리를 거둘것이냐 하는 政治的自信이 問題를 좌우할것이니 우

리는 우리의 統一政策의 具体化方案을 정립하고 北韓側의 固有의 武力統一을 포기않는 以上 꾸준히 우리의 国力을 培養하고 国軍現代化로써 힘의 균형을 이루고 経済開発로써 福利国家를 건설하고 国民의 総和로써 언제인가는 到来할 이総選挙에서 決定的勝利를 걸어서 우리가 理想으로 하는 自由主義社会体制를 樹立해야 할것이다

㉰ U N 加入문제

大韓民国만이 U N에 加入하는것은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 自由主義를 표방하고 U N憲章精神을 支持하고 唯一合法政府로써 U N의 認定을 公的으로 받고있는 現状이나 U N憲章에 規定되어 있는 節次때문에 単独加入은 不可能한 状態다. 南北韓同時加入이란 문제는 現在로서는 상대할수 없으나 장래 어느時期에는 이문제가 提起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両独이 하나의 民族이나 두개의 合法政府로써 加入이 承認되리라는 것이 定評이다. 南北韓은 事情이 다르다. 그러나 北韓을 承認하는 U N会員国이 속출하고 共産国家群이 団結해서 北韓의 加入을 主張하고 나오면 U N으로서는 一応

考慮해야할 시기가 올것이다, 만일 南北韓이 同時에 UN에 加入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民族이 두개의 合法政府라는 決定的事実의 承認으로써 南北統一이란 意味는 一段解消된다 만일 同時加入된 南北韓 두나라가 統一한다해도 현재 우리가 바라고있는 統一도 아니고 우리単一民族의 単一政府의 樹立도 아니다. 国家와 国家의 聯合으로써 하나의 地域的機構가 되고말며 国家와 国家끼리 国際法上 체결된 同盟関係에 不過하다. 이런 統一은 統一이라 호칭할수없고 따라서 南北韓同時加入이란 事実上 곤란하고 또 論理上으로도 不可能한 일이라 하겠다. UN이 大韓民国을 唯一合法政府로 認定하고 있으며 6·25動乱때 北韓의 侵略을 막기위해서 UN軍이 UN歷史上 처음으로 파견되었고 戰後 韓国의 復興에 UN이 積極参与했고 現在 UNCURK가 엄존하고 있으니 UN에 관한限 北韓은 異端視되고 있으니 北韓이 故意로도 UN을 外勢라고 불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UN의 機能을 어디가거나 否認한다고 해서 北韓이 UN과 断絶되어서 国際社会進出을 꿈꾸고 UN의 憲章을 무시하고 世界平和에 기여한다고는 못할것이다 北

韓도 UN에 대해서는 関心을 表示해야할 時期가 到来하고 있는 것이다. 南北韓이 UN에 同時加入이 許可될수 있을것으로 상상된 것은, 첫째, 南北会談이 더욱 進展되여 相互信頼를 土台로한 緊張緩和로써 世界平和에 기여하고 UN의 機能을 認定하는 公的態度 表示가 있어야하고 南北韓 UN同時加入이 장차 韓国完全統一의 前提가 된다는 UN加盟国의 明白한 意思表示가 있어서 韓国의 平和的統一이 UN의 重要한 議題로 決定될때 일것이다.

그러나 現在의 北韓実情으로서는 이런 경우의 想像은 完全히 無意味한것이다. 南北韓이 自体的으로 統一達成을 위해 노력하는것은 民族自決原側에서 当然한 일이나 国際政治의 基本哲学에서 볼때 이 自決原則이 国際社会 관계국의 協力関係에서 이루워 진다는것은 分明한 일이다. 南北韓이 自律的으로 統一努力을 경주하는것은 民族良心의 発露요 再統合이란 当然한 民族自決原則에 입각한 行為요 또 世界平和에 이바지 하겠다는 人類本来의 使命을 실천하려고 하는 民族的大行軍이다 이런努力에 現在로써는 世界的인 관심은 희박하지만 原則的으로 賛成이란 소극적反応이 있을뿐 国際的으로 우리自

体의 努力의 結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정도이다.

南北統一政治会議가 進行됨에 따라서 UN加入問題가 반드시 論議될것이며 이論議는 南北韓서로가 有利하게 引導할려고 한것이나 北韓이 UN에 대해서 表面上 큰관심을 보일수는 없을것이다. 南北統一政府樹立의 UN加入問題는 容易할 것이나 統一政府樹立이 적어도 大韓民国方式에는 共産側이 못할것이고 北韓側統一方式은 우리가 絶対로 容認할수 없을것이니 両者가 다같이 容納할수 있는 可能性을 순수히 前提로 하고 第三의 方式은 UN이 提示할 수도 있을것이다. 여하간에 相互交涉에는 相対가 있으니 서로 認定할수 있는点은 결국 절충한 第三方式을 案出하는수 밖에 없을것이 보통이나 南北韓統一問題만큼은 第三의 方式 즉 中立主義的政府樹立은 想像할수도 없고 또 우리가 願하는 統一方式도 아니고 보면 우리는 꾸준히 統一의 그時期의 到来를 信仰的으로 믿고 우리의 念願이 自由平和繁栄이기 때문에 이것을 満足시켜주는 統一政府를 바라면서 事実로써 国力을 培養하고 스스로 強해져서 総選挙에서 스스로 多数 支持를 얻어야 한다는 原点에 돌아

가니 萬一 앞으로 數十年內 平和統一의 達成을 보지못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統一의 理念과 体制를 根源으로 하고 民族的理想과 方向으로알고 더욱 UN과 協力해야 할것이다.

㈑ 国際機構 共同加入問題

許多한 国際機構에서 UN補助機構나 순수한 民間機構 이거나 여기에 北韓이 加入하는 問題는 現実로써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北韓의 現実로 보아서 우리가 積極 加入을 권고하거나 加入에 賛票는 던질수는 없다. 오히려 現実은 우리가 積極反対하므로써 北韓의 進出을 막는길이 우리 国制가 될것이다. 그러나 変化하는 現実을 土台로 생각할때 共産国家가 힘의 対決이나 人民革命戰略을 포기하고 協商과 対話의 政策変化를 表示한다면 事情은 달라질것이다.

우리의 対共産国에 대한 할슈타인原則도 정세의 変化에 따라 意味를 점점 상실해가는것도 事実이다 原則的으로 北韓과 국交한 나라와는 国交를 가질 수 없으나 一般国交를 맺은 나라가 北韓을 承

認할때 우리는 外交凍結에서 相対方에게 유감의 뜻을 表하고 再考를 促求할 뿐이지 그以上의 조치가 사실 곤란하다. 北韓이 많은 国際機構에 加入하는것도 우리가 積極막아야하나 事実은 어려운 点이 많으니 일단 北韓이 加入한 国際機構에는 우리가 더욱 積極性을 表示해서 이機構内에서 世界가 注視하는 舞台에서 우리의 優位를 実証하는 方法이 있다. 北韓의 UN加入問題와는 달리 이모든 民間国際機構加入은 그様相을 달리하는것이 現実이다. 요는 国内에서 이루워지는 南北赤十字会談, 南北調節委員会 進行에 따라 統一에의 期待가 左右됨으로써 이런問題를 注視하면서 오늘날 開方社会에서 開鎖政策이 얼마나 無意味하게 戰爭準備란 口号가 独裁統治上에는 政権維持의 구심이 될지모르나 国際平和의 達成에는 時代逆行의 不合理를 自覚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努力만이 重要하다. 지금부터는 北韓自体의 進出을 억제하고 포위하는것 보다는 開放社会에 유인해서 世界与論과 世界舞台에서 그優位를 가지는 積極戰法이 必要하고 사실 우리나라 수준과 発展이 여기까지 왔다는 自信은 우리스스로가 切実히 直感하고있다 따라서 北韓의 世界

機構加入은 어느意味로 보아서는 우리가 統一会議의 成果를 얻은데 우리의 대처여하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일일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統一을 앞두고 国内의 制限된 会談과 制限된 交流와 並行해서 世界到処에서 北韓과 正面対処하는 大者의 아량과 自信을 表示하는일이 앞으로 예상되는 南北政治会談에 큰도움을 줄것이다.

核武器의 発展時代에서 相互紛争이 얼마나 無意味하다는 것은 世界国家들은 自覚하고 있기때문에 平和共存이란 理念으로 国際協力機構의 증가는 또 당연한 추세라 하겠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北韓이 더욱더 많은 国際機構에 加入하려고하는 動向을 우리로서는 큰関心事가 아닐수없다. 国際機構가 비록 民間親善団体 일지라도 北韓의 加入이 実現된다면 그만큼 北韓의 地位向上을 보여주는 것이니 우리는 이事実을 보고만 있을수도 없고 또 北韓의 事実上 地位向上을 故意로 부정또는 非難만 되풀이하면서 자위할수도 없을것이다. 이러한 情勢가 北韓으로 하여금 南北会談에 임하는 태도에 큰영향을 줄것이다.

共産側은 더욱 強하게 政治的解決을 들고나와 会談을 지연시키고

軍事減縮과 美軍撤収를 들고 나온것이매 ＵＮ에서 韓国問題討議를 上程시켜 多数의 中立国票를 動員해서 ＵＮ에서의 可決을 自己側에 유리하게 시도할것을 明白한 일이고 南北統一政策도 自律的으로 平和解決을 도모한다는 7.4南北共同声明精神에 反対되는 方案을 들고 나와 南北会談을 無意味하게 만들 公算이 크다 北韓의 国際機構加入은 앞으로 더욱 実現될것이 예상된다. 우리는 原則的으로 아직은 이런事態로 막아내는 方針으로 나가야하나 하나하나의 事例에 当面했을때 南北統一이란 大念願아래 때로는 부득기한 事実로 이것을 黙示하는 方針을 樹立하고 오히려 이런国際機構運動에서 優位를 견지하고 平和共存의 方針아래 앞으로의 統一에 対備하는 方針을 樹立할수밖에 없을것이다. 이러한 方針이 南北政治会談이나 統一을 위해서 있을 共同選挙委員会나 기타 統一을 위한 直接的 南北共同機構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오히려 和解와 協力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判断된다. 南北政治会談은 統一後의 政治体制 또는 政権維持에 직접 관련이 있는 会談이므로 제一단계 제二단계의 交流가 成功的으로 이루워 져서 和解와 協力이 이루워지고

共同福祉国家建設에 自信을 갖고 国際社会에서는 相互地位向上과 관계국의 統一에 대한 協力 또는 理解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政治的理念과 앞으로의 理解関係가 격화된것은 明白한것이다. 北韓이 내세우는 相互武力減縮이 서로 설사 実現되었다 하드라도 이런조건이 統一政治会談에 有利한다는 保障도 없고보면 政治交流나 政治会談은 최종적으로 너무나 많은 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극복해 나가야 할일이니 멀고도 험난한 統一에의 길이니 성급히 포기하고 理想에 만족하려고 하는 태도는 容納될수 없으며 분위기개선과 相互将次樹立될 統一政府를 위해서 両側은 誠心을 다해서 努力해야 한다. 어떠한 問題를 討議하든지 긴장완화를 위한 努力과 相互協力이 필수조건이라는것은 역시 두말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 一般的 政治 交流

一般的 政治交流도 相互 和解나 協力이 先行조건이고 이 相互和解나 協力은 統一이란 民族的 使命에 투철해야 할것이며 이러기 위해서는 7.4南北共同声明을 충실히 받아들여 相互비방을 금하고

상호긴장을 가져오는 일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 政治交流는 南北会談이 최종적으로 결실을 보기 전에는 사실 실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政治問題 解決에 도움이되면 一般的 政治交流를 가급히 실행해야 한다.

相互政党 協議体를 구성해서 政治現実을 討議한다든지 政治人이 南北会談과는 別道로 自由왕래를 하고 国会義員 간담회를 조직하는 것도 有利한 方法으로 生覚된다 一般 政治人이 相互社会 実情을 시찰하기 위해서 농어촌을 시찰하고 상호 行政제도나 法律制度 教育制度를 전문가 이외에 순수한 政治人이 시찰연구하는 方法을 政治会談과는 別度로 実行해서 政治会談에서 논의될 모든 平和的 問題 経済社会問題를 측면적으로 시찰하고 회담진행과 성공에 거국적 지원이 요청된다.

関係国 국제회의도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바 있으나 南北韓과 日, 美 中共 쏘련 이외에도 다른나라가 참가해도 무

방할 것이나 (中立国등 参加) 이것은 韓国統一을 이룩한다는 国際社会의 우호적 분위기와 南北韓의 진지한 統一 노력에 활력소가 될 역활을 해야하며 이와同時에 UN에서 韓国問題 上程도 신중히 고려 되어야한다 現在로서는 南北対話가 시작되었다는 것뿐이고 그 성과를 속단할수 없고 UN에서의 韓国問題 上程은 自体的 南北対話에 지장을 줄뿐이며 이対話의 진행과 결과를 보아 UN 上程문제는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제三단계 통일방안이 직접 政治会談까지 진첩 되었을때 UN에서 한국 問題討議는 그때 事情을 보아 신중히 다루어야 할것이다 기타 국제기구내에서 南北韓이 加入되여 있을때 南北韓 統一 政治会談이 진행된다면 직접적 회담에 영향을 미칠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우호적 지원이 될수있도록 노력하는것은 당연한 일일것이다 一般的 政治交流는 제三단계 統一政策의 구체화를 위해서 남북 政治会談이 성공하고 총선거를 위한 관리 委員会나 선거법이 決定되고 共同감시가 이루어지고 하는 단계

에서는 친선을 도모한다는 以上은 成果를 얻기도 至難할 뿐더러 一般的 交流란 총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역효과 또는 副作用을 유발할 염려가 없는것도 아니다 총선거에 대한 事前宣伝이나 또는 政治犯 석방 군비축소등 이외의 문제는 統一政府가 수립되고 国土統一이 完成되었을때 新政府가 처리할 政治問題 이므로 会談進行중에는 一般的 政治交流란 必要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想像된다.

10. 結　　論 (国土統一의 完成)

단계적 統一政策의 具体化 方案을 以上과 같이 생각해보고 그 실천 方法을 設定해 보는것은 勿論 必要한 일이다. 이 具体化 方案은 꼭단일 国家의 主権作用이나 法律行為도 아니고 하물며 行政命令 形式으로 하달되어 집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하물며 共産集団을 실지 회복이라고 해서 統一하고 우리에게 同化시킨다는 것은 事実 얼마나 곤란한 政治行為 인가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民族的 聖業으로서 国土統一이란 절박한 政治理想과 너무나 상이한 共産集団과의 統一이란 政治現実의 상극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国土統一이란 大使命앞에서 우리는 또한번 団結해 보자는 것이다.

国土分断이 어떻게 解決될지는 業実上 예상하기 어려우나 이 政治現実과 政治理想을 어떻게 調和 할것인 가가 근대政治의 하나의 큰 시련이라 하겠다. 다행히 共産主義者들도 国土統一을 원하고 있는것 같이 説明하고 있다. 그統一方法은 아직은 正体

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共産主義化 統一을 바라고 있는것 만큼은 明白한 사실이고 외세간섭의 배제 즉 民族主体라는 美名으로 UN과 美国의 개입을 시초부터 反対하고 있으니 이것은 大韓民国의 힘, 特히 막강한 軍事力을 감소시키고 南北間의 対話에서 또는 앞으로 있을수도 있는 南北 총선거에서 독특한 선전과 조직또는 人民혁명이란 폭력으로 용이하게 共産式선거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統一이란 우리들의 国内問題임과 아울러 国際社会의 共同課題이므로 共産진영의 단순政治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共産主義式으로 처리가 될수도 없고 또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나 国土統一에 관해서는 여하간 꼭 성취해야할 問題이면서도 또 이以上 어려운 政治課題도 없고 보면 차라리 분단상태의 現状에 만족 한다는 선급한 비조리의 단결이 튀어 나올법도 하다.

国土統一은 国民이 다같이 원하고 있으면서도 相対가 共産主義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論議 하기를 国民이 사실상 기피해온 것이 事実이다. 大韓民韓에 国土統一院을 설치하고 統一에 대한 国民의 열망을 받아드리고 정부가 적극적 자세를 취한것은 共産

主義集団의 統一에 대한 망상 즉 人民解放이란 구호 그것도 무력으로 해방시킨다는 時代역행의 구호 보담은 分明히 合理的이고 政治기술의 우월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自体의 모순을 은폐하기 為해서 더욱 긴장을 조성하고 도발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世界情勢는 핵전쟁을 피하고 対話를 通한 화해협력 그리고 平和共存이 새로운 차원에서 国際平和를 희구하게 되었다. 모든 国際情勢가 하나하나 国際協力이란 政治哲学에서 움직이게 되었다. 구라파情勢 美·쏘 関係, 美·中共, 美·日関係, 독일문제, 월남전해결, 国際経済協力, 中立세력의 재편성 科学文化의 발달, 국제협력기구의 증설, 平和共存의 실천이 모두가 現代国際政治의 방향변경을 明示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北韓이 무력統一 포기를 실증하고 善意의 사회경제 경쟁을 바라고 平和協力의 方向을 먼저 선언한것은 고도의 合理的 政治技術이요 国土統一에 대한 문서를 대담히 개방한 영단이었다.

北韓은 표면상으로는 이政策을 부인 한것같이 宣伝해 왔으나 自体内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세계정세의 변화를 故意로 도외시하

고 国土統一을 平和的으로 달성 한다는 방침에 순응 할수밖에 없는 사태에 직면했다. 이기회를 포착해서 南北対話란 事実 우리측 주도로 시작 되었다.

이 南北対話가 初期的 進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本会談의 핵심에 아직 도달 못해서 속단하기 어려운점이 許多하나 南北対話가 시작되었다는 점만으로써 우선 긴장 완화란 初期目的은 달성 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北韓側이 모든会談에서 政治軍事問題解決을 일각에 들고나와 미군철수 군비상호감축 大韓民国 反共体制의 변경 民族主体라는 명칭에서 UN의 권능부인등이 틀림없는 相対의 基本方針으로 간주된다. 長時間에 걸친 理念과 体制의 상이 원앙의 계속적조성 共産体制의 本質등으로 볼때 統一을 진실로 희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접촉에서 相互理解 相互和解 相互協力 統一에 대한 공동염원달성을 이룩하고 서서히 분위기를 개선하고 일보일보 実現할수있는 方法부터 차차 統一政治会議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적어도 自由社会의 哲学이요 또 相対方을 두고 더구나 共産集団과의 対話에서는 目的을 달성할수

있는 순서적 方法이란것은 分明한 이치이나 共産主義者가 이것을 反対한 것은 分明히 自己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一歩一歩 可能한 問題解決로 점차 차원높은 政治会談에의 이행이 왜 共産集団에 不利한 것인가. 一人독재란 통치형태 때문이다. 이런형태를 서서히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측 단계적 통일책을 용납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측 단계적 방식이 용이하지 않다는 相対的理由는 바로 여기있다. 솔직히 말해서 現在상태로서는 北韓側이 참으로 国土統一을 바라고 있는지는 믿기 어려운 점이 허다하다. 国際平和에 기여하고 있다는 宣伝의 저의를 갖추고 形式上 統一에 응하고 있는지 또는 真正으로 統一을 民主的으로 이룩할려고 하는측은 北韓이라고 宣伝하고 南韓의 소위 人民봉기나 공산조직의 부활로 南韓을 共産化 시킬수 있다고 바라고 있는지 또는 統一会談을 어느정도 진전시켜서 国際地位向上만을 도모하고 北韓人民의 政治수단으로 利用하고 있는지 또는 이렇게 하므로써 UN서 韓国問題를 上程시키는데 성공하고 궁극적으로는 美軍을 철수시키고 UNCURK를 解体시키고 主体的으로

統一해서 총선거에서 압도적 勝利를 거두고 南北韓을 統一한 共産政権수립으로 現共産集団이 永久統治할수 있다고 망상하는지 참으로 믿기 어려운 허다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이모든 있을수 없는 方法을 豫想하고 이것에 언제든지 대처할수 있는 可能한 대비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만 순진하게 統一政策을 마련하여 그 具体化 方案을 相対方에 제시해 보았자 이것이 共産化란 基本路線에 合致되는것 以外는 事実条件反対하거나 지연시켜 교묘히 그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킬려고 하는것은 비단 北韓뿐만 아니라 共産国家의 統治原則이 그러니 우리는 長時日이 걸리고 백보를 양보해서 統一이 당장 성취되는 일이 없다하드라도 적어도 南北統一対話가 순전히 共産側立場을 国内的으로 国際的으로 有利하게만 만들수는 絶対로 없다는 것이 우리의 使命이다. 統一의 基本路線은 統一이란 제목아래서 우리가 共産統一을 바랄수는 없다. 自由化 물결이 서서히 北韓側을 소용돌이치고 北韓自体가 自由化란 共産主義自体의 体質的変化를 期待할수 밖에없다. 이러한 원대한 전략과 우리 自由民의 소신을 土臺로해서 統一政策의

具体化方案을 研究하고 이것을 設定해서 南北会談의 基本方針으로 하는 우리側 理由가 여기있다.

第一단계가 成就되므로서 第二단계의 成果를 이룩할때 第三단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方案을 확정한 것이다. 南北統一은 現在대로의 상황하에서는 절대로 이룩되지 않는다. 戰爭으로 무력을 使用해서 相対方을 말살하든지 우리측이 불행이도 말살된다 는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世界平和에 역행하는 일이다. 平和를 신봉하는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相対方의 무력증강을 주시하고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軍力維持 平和的 国土統一이 지상명령이고 使命이다. 平和的 統一을 달성 할려면 상호긴장과 적대심을 풀어야한다. 이것은 실지로 증명을해서 世界社会와 南北韓社会에 証明을 해주어야 한다. 相互理解와 和解 그다음에 相互協力 그리고 相互協力의 최종적 승화가 신성한 国土統一 이다.

제一단계는 순수한 民間人끼리의 文化的 学芸術的, 체육관계, 보건의료관계 交流가 용이할 것이며 순서라고 판단되어 구체화 방안

을 생각해 보았다. 이구체화 방법이외도 또可能한 方法도 있을 것이나 이 제一단계 方法도 그自体가 용이한 일도 아니고 또 실지 단계에서 問題点도 許多하다.

제二단계는 제一단계가 어느정도 진행되거나 또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될때 순수한 民間人 또는 민간단체를 主動으로해서 案出할 방안이다. 제二단계 방안은 제一단계 방안 다음에 実行한 것이 原則일 것이나 事情에 따라서는 거의 동시에 실행될수도 있을것이다. 제二단계는 경제적교류요 国家의 부강과 統治理念에도 간섭이 있을뿐 아니라 군수공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므로 군사적 증강에도 관계가 있는 일이니 政治性을 내포하기 쉽다. 따라서 제二단계의 경제교류도 実現하기에는 너무나 난관이 많음을 시인 않을수없다. 제二단계의 政治会談은 統一政府 수립方法 형태 제헌국시등 참으로 二十세기 최대의 政治工事요 정치숙제가 아닐수없다. 世界의 여론은 南北対話가 바람직 하다는것과 南北 긴장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原則的인 찬의만 표하는 国家가 소수이나마 있을뿐 대다수는 방관하는 입장에 있다. 세계기구나 관계 강대국은 南北統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없다. 그만큼 동서 냉전이 심각하고 平和共存이란 아직은 現実을 둘러싸고 투표전이 벌어지고 있으나 韓国側에만 有利하다는 상황은 반드시 아니고보면 南北統一이 原側的으로 民族 自体原側에서 南北韓 相互間의 自主的 노력에 유지해야 하나 国際情勢의 動向 즉 동서 냉전해소 군비축소 지역적 国家協力 기구창설 国際通貨安定 경제전쟁 지역분쟁해결 UN의 기능강화등이 크게 南北会談에 영향을 미칠것이 分明하다. 이모든 具体化 방안은 하나의 시안이다. 北韓이 무력을 포기하지 않고 南北統一 政策을 人民解放이란 과거의 주장에만 고집한다면 이 会談은 成功하기 어렵고 具体化 방안은 하나의 空理空論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北韓은 변화해야 한다. 自由主義体制와 충분히 共存할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이변화는 内的作用과 外的作用이 必要하다 이外的作用을 南北会談이 담당해야 한다. 동시에 南韓도 변화해야 한다. 内的변화의 하나가 10月 維新이며 그 실천이다.

경제발전과 国力증강만이 南北会談進行中 우리 구체화 방안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요 南北統一後에 우리 自由民主主義를 각지에 파급 시킬수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南北会談은 現在로서는 分明히 정지상태다. UN총회를 기다려보는 경향도 있다. 우리의 統一 구체화를 주장해볼 機会도 없었다. 그러나 계속될 南北会談에 우리 方針이 확고부동하게 수립되여야 한다.

물론 交涉의 相対主張과 情勢変化에서 이 方案이 修正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統一政府樹立後의 국가로선 制憲体制 기타 政治問題는 総選挙後의 統一政府의 重要한 課業일 것이며 모든 方針은 民主主義的으로 南北韓国民의 自由意思가 土台가 되어야 한다.

統一은 相対方針이 있고 이 方針이 対立되였을때 이것을 調節할 수 있는 妥協案은 그것이 어떤 路線이든간에 역시 国民全体의 참가에 의한 自由意思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물론이다.

말하자면 統一의 可能性을 相互 바라 보면서 統一에 대한 허심탄회한 誠意를 서로 表示해야지 자기측 立場만 고집하면 南北

会談은 相対方의 뜻을 探索하는 정도와 相互国内事情과 社会体制를 시찰한다는 데서 끝을 맺을 것이고 政治的 統一은 오히려 不可能하게 되고 南北韓 分断은 더욱 永久化시키고 敵対心만 더욱 助長시킨다는 역효과만 超来할 것이 分明하다.

文化的 交流 経済的交流 政治的交流 그리고 統一政府樹立는 有利한 客観的 条件을 保有하고 있는 大韓民国側에 더욱 有利할 것이며 더욱 有利한 것이기 때문에 北韓側 反対가 莫心할 것이라는 것을 豫見할 수 있다.

이 모든 具体化方案의 実践은 大韓民国의 経済発展 国力培養 社会의 道義的 改革 国家 総団合이 이루어지고 이것과 併行해서 南北赤十字会談 南北調節委員会 기타 共同対話에서 우리측 입장의 先行이 基本活力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최후로 한번더 強調하고 싶다.